



#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정신 조사

**2018**



## **집필위원**

배태준 | 한양대학교 교수

이종균 | 제임스매디슨 대학교 교수

## **감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교육팀

# 목 차

<b>I. 서론</b> .....	<b>6</b>
1.1. 추진배경 .....	6
1.2. 이론적 모델 .....	6
1.3. 프로젝트 기획 및 자료 수집 과정 .....	6
<b>II. 인구통계학적 특성</b> .....	<b>7</b>
2.1. 참여대학 및 응답자 현황 .....	7
2.2. 학생 통계 자료 .....	8
2.3. 대학 .....	9
<b>III. 직업 선택 의사</b> .....	<b>12</b>
3.1. 일반사항 .....	12
3.2. 전공에 따른 직업 선택 .....	12
3.3. 성별에 따른 비교 .....	16
<b>IV. 창업 의지의 결정 요인</b> .....	<b>17</b>
4.1. 창업 의지에 대한 세부 분석 .....	17
4.2. 대학 요인에 따른 분석 .....	19
4.2.1. 기업가정신 관련 수강 경험 .....	19
4.2.2. 수업효과 .....	20
4.2.3. 교내 분위기 .....	21
4.3. 가족 분위기 .....	22
4.4.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분석 .....	25
<b>V. 예비 창업자</b> .....	<b>27</b>
5.1. 개별 정보 .....	27
<b>VI. 창업자</b> .....	<b>33</b>
6.1. 일반사항 .....	33
6.2. 창업자 특성 .....	38
<b>VII. 요약 및 결론</b> .....	<b>42</b>

## 표 목차

<표 1> 대학 현황 .....	7
<표 2> 학교 졸업 직후와 5년 후 진로 선택 .....	12
<표 3> 성별에 따른 학교 졸업 후 진로 선택 .....	16
<표 4> 창업의지 관련 문항 .....	17
<표 5> 수업효과 .....	20
<표 6>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	26
<표 7> 사업장 직원 수(본인 제외) .....	37
<표 8> 창업자의 권력거리 .....	39

## 그림 목차

<그림 1> 연령 분포 .....	8
<그림 2> 성별 분포 .....	9
<그림 3> 국적 분포 .....	9
<그림 4> 재학 중인 학력 .....	10
<그림 5> 전공 분포 .....	10
<그림 6> 성별에 따른 전공 분포 .....	11
<그림 7> 전공에 따른 학교 졸업 직후 진로 선택 .....	14
<그림 8> 전공에 따른 학교 졸업 5년 후 진로 선택 .....	15
<그림 9> 전공에 따른 창업의지 .....	18
<그림 10>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창업의지 .....	18
<그림 11> 기업가정신 관련 수강경험 .....	19
<그림 12> 대학의 창업 관련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	21
<그림 13> 교내 분위기 .....	21

<그림 14>	부모님 사업가 유무 .....	22
<그림 15>	부모님 사업가 유무에 따른 학교 졸업 직후 직업 선택 .....	23
<그림 16>	부모님 사업가 유무에 따른 학교 졸업 5년 후 직업 선택 .....	24
<그림 17>	창업 의사에 따른 주변 사람들의 인식 .....	25
<그림 18>	예비창업자 전공 분포 .....	27
<그림 19>	성별에 따른 예비창업자 전공 분포 .....	28
<그림 20>	자신의 사업을 위해 시작한 활동 유무 .....	29
<그림 21>	자신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 .....	30
<그림 22>	자신의 사업을 할 때 동업자 수 계획 .....	31
<그림 23>	자신의 사업에서 지분율 .....	32
<그림 24>	자신의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 계획한 기간 .....	32
<그림 25>	창업자 전공 분포 .....	33
<그림 26>	성별에 따른 창업자 전공 분포 .....	34
<그림 27>	회사설립연도 .....	35
<그림 28>	창업자 사업 분야 .....	36
<그림 29>	소유 지분율 .....	37
<그림 30>	창업자의 활력 .....	38
<그림 31>	창업자의 정서적 몰입 .....	39
<그림 32>	창업가의 일반적인 태도(자부심) .....	40
<그림 33>	본인 기업 현황 .....	41
<그림 34>	혁신적인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 중요한 것 .....	41

# I. 서론

## 1. 1. 추진배경

GUESSS는 'Global University Entrepreneurial Spirit Studnets Survey'의 약자로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와 활동을 조사한 국제 연구 프로젝트다. 2003년 The Swiss Research Institute of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at the University of St. Gallen에서 시작하였다.

본 보고서는 제2차 한국 국가보고서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의 창업 의도와 활동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찰
- 새로운 벤처와 기업가적 커리어로의 의향을 지닌 학생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기업가적 활동을 위한 대학의 지원 활동 관찰 및 평가

## 1. 2. 이론적 모델

GUESSS의 이론적 기반은 Theory of Planned Behavior<sup>1</sup>이다. TPB는 특정 행동에 대한 의도가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기준, 인지된 행동제어와 같은 3가지 요소에 의해 설명된다는 이론이다.

## 1. 3. 프로젝트 기획 및 자료 수집 과정

GUESSS 프로젝트는 스위스의 KMU-HSG(The Swiss Research Institute of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at the University of St. Gallen)가 주관하며, 해당 대학의 교수인 Philipp Seiger가 총괄하고 있다. 각국별로 하나의 대표가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가 전달된다. 한국의 경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대표로 있으며 격년으로 전국 대학생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

<sup>1</sup>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II. 인구통계학적 특성

### 2.1 참여대학 및 응답자 현황

설문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12월 21일에 18개 대학 83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응답자 분포는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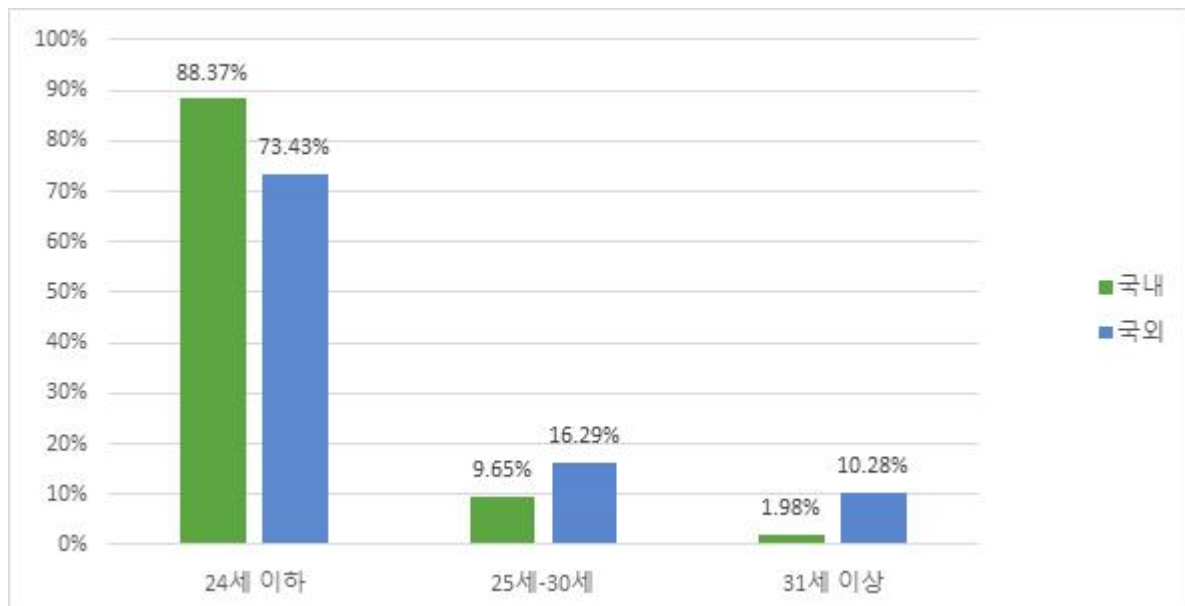
<표 1> 대학 현황

University	N	%
가톨릭관동대학교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1	0.12
대구대학교 (Deagu University)	14	1.68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4	0.48
동서대학교 (Dongseo University)	22	2.64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Hanyang University, Seoul)	8	0.96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Hanyang University, ERICA)	1	0.12
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4	0.48
중부대학교 (Joongbu University)	4	0.48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32	3.85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10	1.20
한국나사렛대학교 (Korea Nazaren University)	590	70.91
한국과학기술원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	0.12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3	0.36
경일대학교 (Kyungil University)	19	2.28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20	2.40
포항공과대학교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	0.12
영남대학교 (Yeungnam University)	2	0.24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Yonsei University, Wonju)	2	0.24
기타	94	11.30
<b>합계</b>	<b>832</b>	<b>100.00</b>

## 2.2 학생 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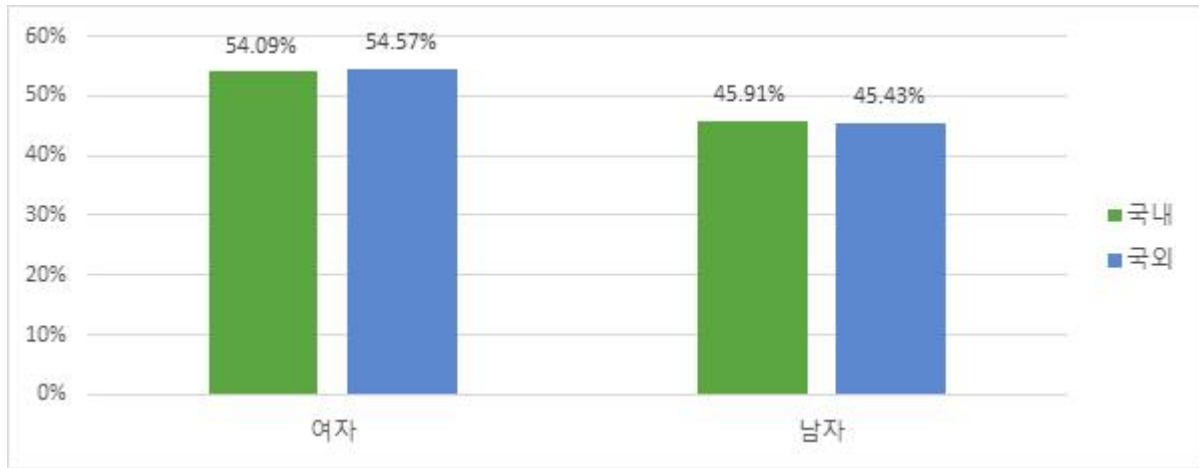
응답자의 연령은 <그림1>과 같다. 응답자가 대부분 24세 이하로 88.37%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25~30세는 9.65%, 31세 이상은 1.98%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 데이터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응답자는 24세 이하 비율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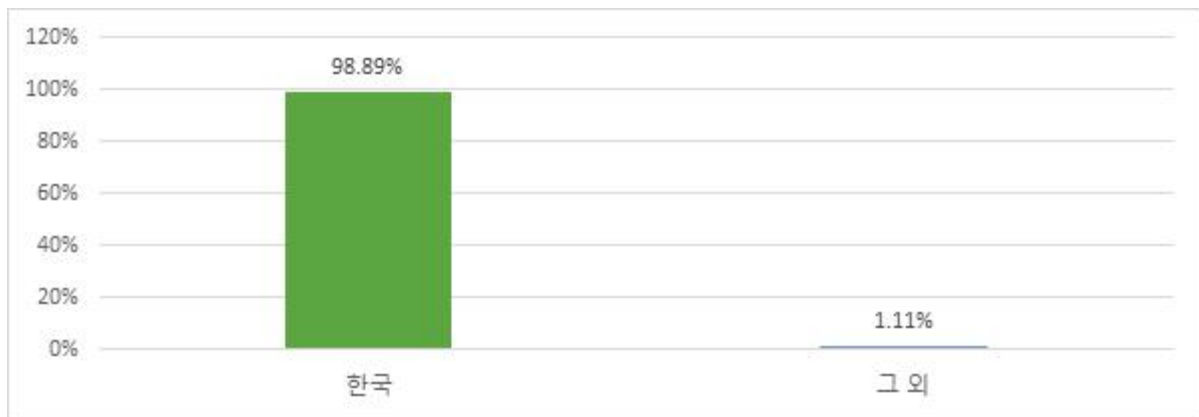
832명 대상 중에 여성은 54.09%, 남성 45.91%로 국제 데이터와 거의 비슷했다.

<그림2> 성별 분포



응답자의 국적은 98.99%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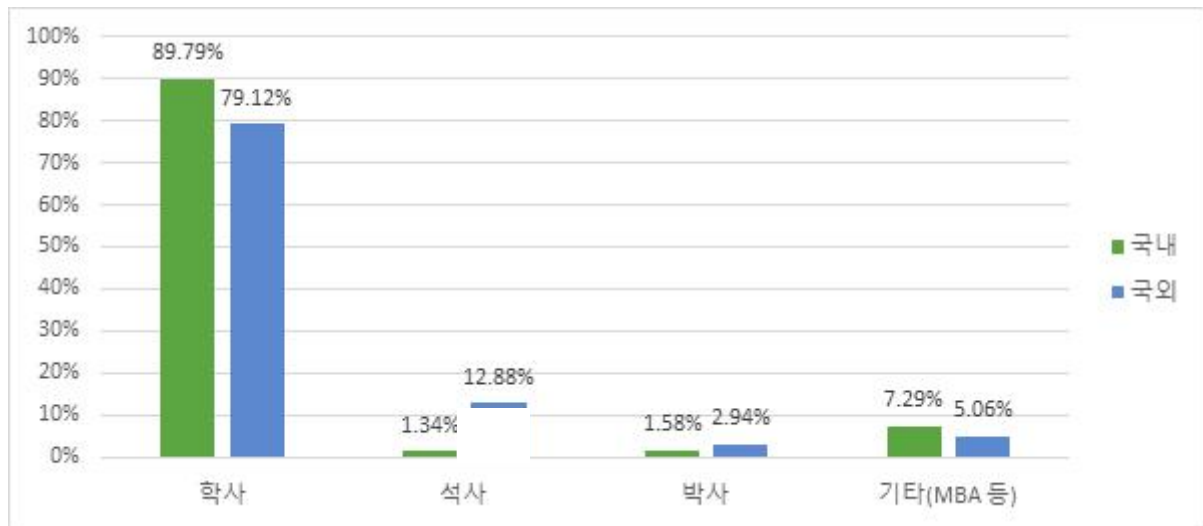
<그림 3> 국적 분포



### 2.3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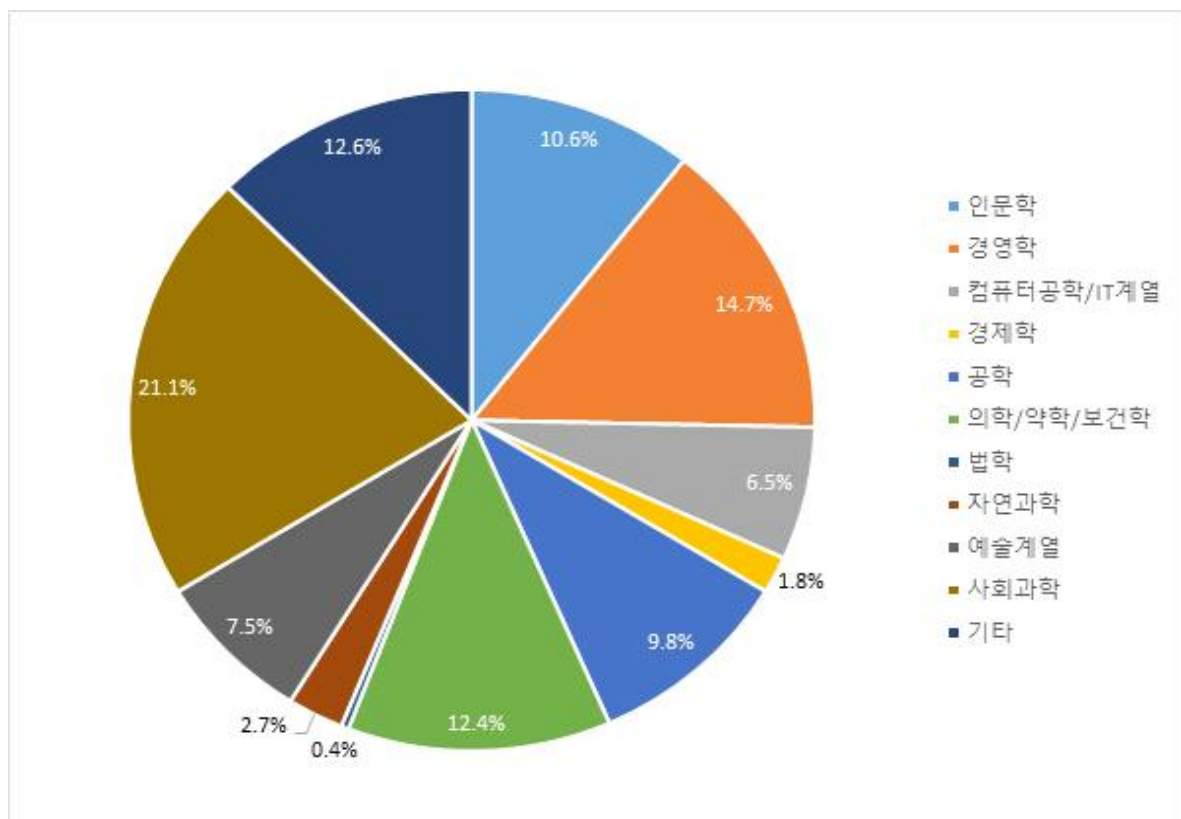
응답자의 학력 분포는 대학생 89.79%, 석사 1.34%, 박사 1.58%, 기타 7.29%였으나 국제 데이터는 한국보다 대학원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그림 4> 재학 중인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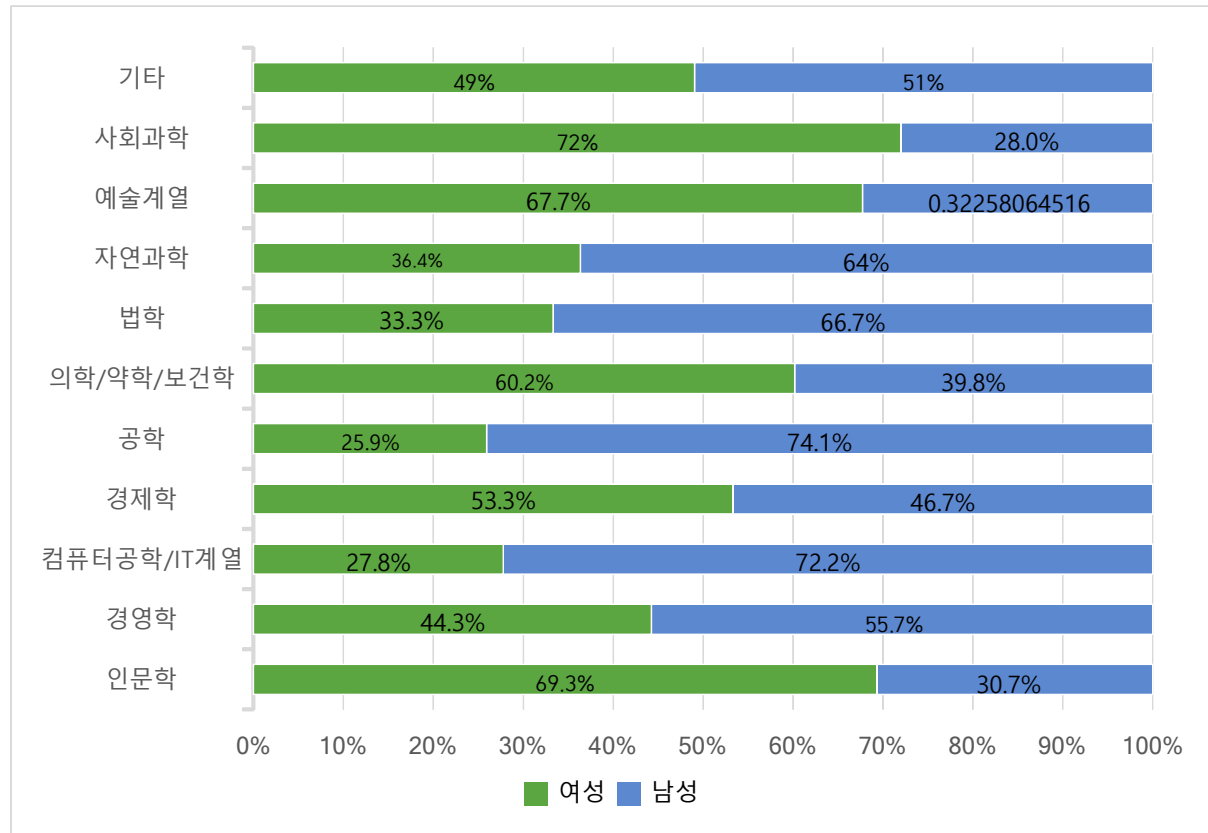
응답자 중 사회과학(심리학, 정치학, 교육학) 21.1%, 경영학 14.7%, 의학/약학/보건학 12.4%, 인문학(문화학, 사학) 10.6%, 공학 9.8%, 예술계열(미술, 디자인, 연극, 음악) 7.5%, 컴퓨터공학/IT계열 6.5%, 자연과학 2.7%, 경제학 1.8%, 법학 0.4%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5> 전공 분포



응답자 성별에 따른 전공 분포는 경영학, 컴퓨터공학/IT계열, 공학, 법학, 자연과학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인문학, 경제학, 의학/약학/보건학, 예술계열, 사회과학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았다.

<그림6> 성별에 따른 전공 분포



### Ⅲ. 직업 선택 의사

#### 3.1 일반사항

학교 졸업 직후와 졸업 후 5년 후의 진로 선택에 대한 질문의 답을 <표2>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 졸업 직후 진로 선택에 대한 물음에 취업이 69.71%인 반면 5년 이후에는 62.74%의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자신의 사업을 하겠다는 창업자의 비율은 졸업 직후 7.57%, 5년 후 15.38%로 비율이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략 20%가 진로 선택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표 2> 학교 졸업 직후와 5년 후 진로 선택

	졸업 직후	졸업 5년 후
취업-소기업 (직원 1-49명)	10.34%	2.52%
취업-중소기업 (직원 50-249명)	24.40%	11.42%
취업-대기업 (직원 250명 이상)	11.90%	20.55%
취업-비영리기구	2.88%	3.13%
취업-연구원 (학업 경력을 위해)	5.53%	5.53%
취업-공공기관	14.66%	19.59%
자신의 사업	7.57%	15.38%
가족의 사업 승계	0.84%	2.28%
가업-현재 가족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사업	1.44%	1.20%
기타/아직 잘 모르겠음	20.43%	18.39%
<b>합계</b>	<b>100.0%</b>	<b>100.0%</b>

#### 3.2 전공에 따른 직업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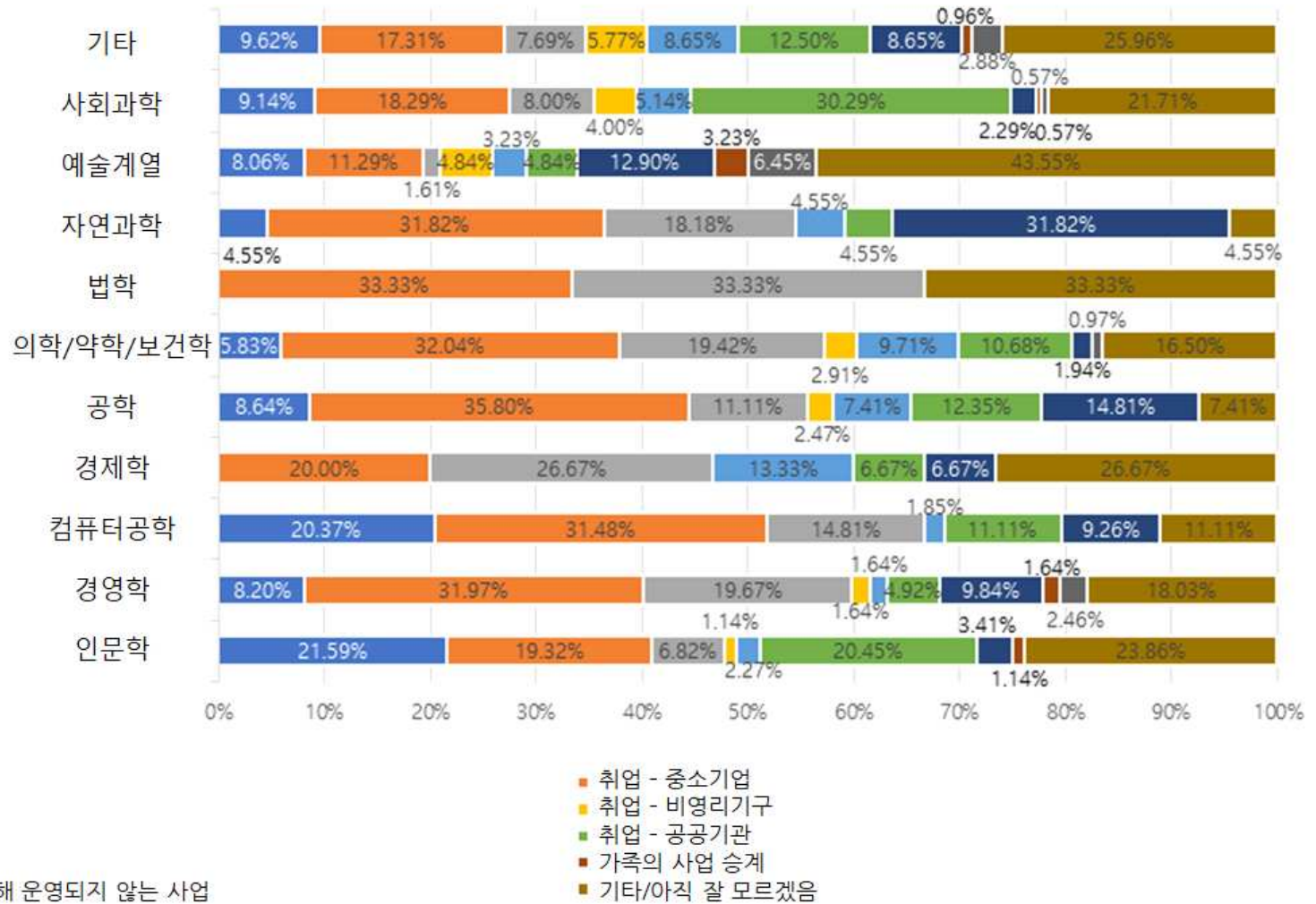
<그림7>은 전공에 따른 졸업 직후 진로 선택에 대해 보여준다. 취업을 선택한 비율은 인문학 71.59%, 경영학 68.04%, 컴퓨터공학/IT계열 79.62%, 경제학 66.67%, 공학 77.78%, 의학/약학/보건학 80.59%, 법학 66.66%, 자연과학 63.65%, 예술계열 33.87%, 사회과학 74.86%, 기타전공 61.54%로 나타났다.

반면에 창업(자신의 사업)을 선택한 비율은 인문학 3.41%, 경영학 9.84%, 컴퓨터공학/IT계열 9.26%, 경제학 6.67%, 공학 14.81%, 의학/약학/보건학 1.94%, 법학 0%, 자연과학 31.82%, 예술계열 12.90%, 사회과학 2.29%, 기타전공 8.6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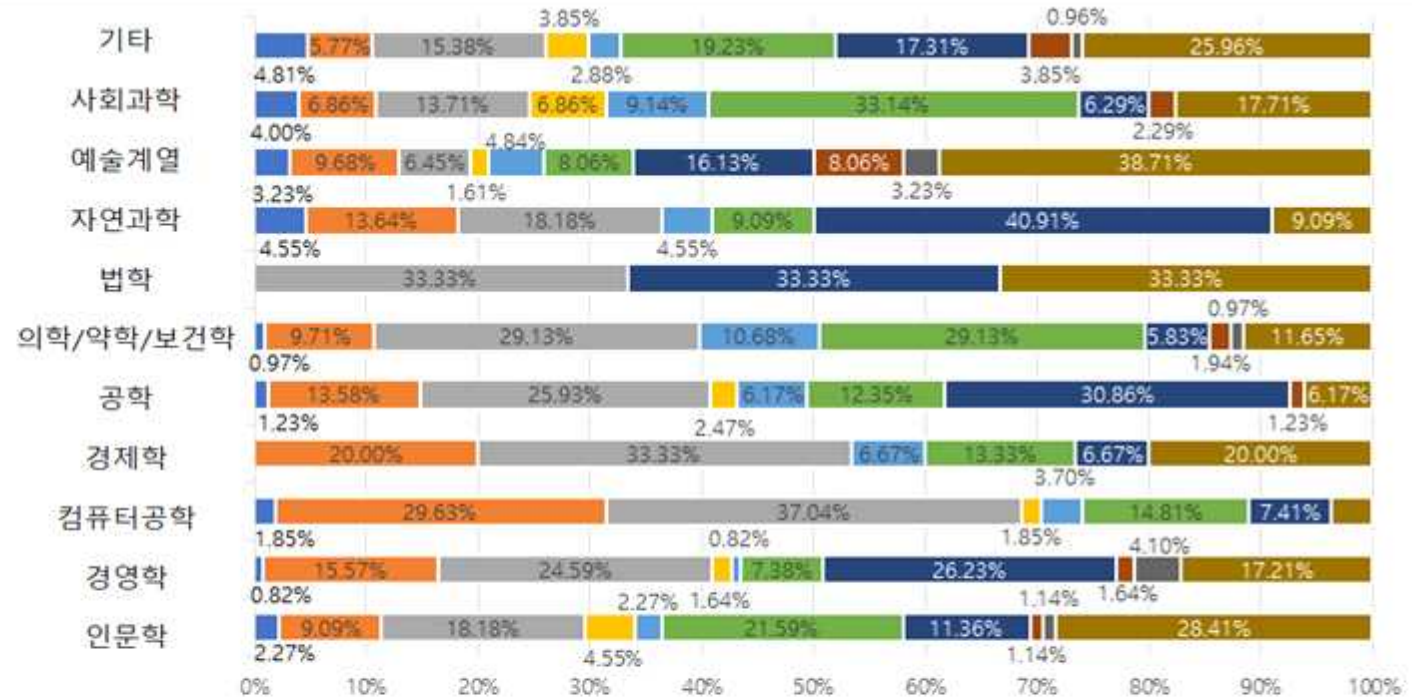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8>은 졸업 5년 후 진로 선택에 따라 전공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취업을 선택한 비율은 인문학 57.95%, 경영학 50.82%, 컴퓨터공학/IT계열 88.88%, 경제학 73.33%, 공학 61.73%, 의학/약학/보건학 79.62%, 법학 33.33%, 자연과학 50.01%, 예술계열 33.87%, 사회과학 73.71%, 기타전공 51.92%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의 사업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인문학 11.36%, 경영학 26.23%, 컴퓨터공학/IT계열 7.41%, 경제학 6.67%, 공학 30.86%, 의학/약학/보건학 5.83%, 법학 33.33%, 자연과학 40.91%, 예술계열 16.13%, 사회과학 6.29%, 기타전공 17.31%의 비율을 보였다.

졸업 직후와 졸업 5년 후 진로 선택을 비교해보면 컴퓨터공학/IT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에서 창업을 선택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경영학이 16.39%p, 공학이 16.05%p 증가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그림 7> 전공에 따른 학교 졸업 직후 진로 선택



<그림 8> 전공에 따른 학교 졸업 5년 후 진로 선택



- 취업 - 소기업
- 취업 - 중소기업
- 취업 - 대기업
- 취업 - 비영리기구
- 취업 - 연구원
- 취업 - 공공기관
- 자신의 사업
- 가족의 사업 승계
- 가업 - 현재 가족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사업
- 기타/아직 잘 모르겠음

### 3.3 성별에 따른 비교

성별에 따른 졸업 후 진로 선택을 비교했을 때, 졸업 직후 취업을 선택한 학생은 여성 70.10%, 남성 69.00%로 나타난 반면 자신의 사업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3.10%, 남성이 12.80%로 나타났다. 졸업 5년 후 진로 선택은 취업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의 경우 여성이 67.30%, 남성이 57.20%인 반면, 자신의 사업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8.90%, 남성이 23.00%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졸업 직후나 졸업 5년 이후에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성별에 따른 학교 졸업 후 진로 선택

항목	졸업 직후			졸업 5년 후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취업-소기업 (직원 1-49명)	12.9%	7.3%	10.3%	3.8%	1.0%	2.5%
취업-중소기업 (직원 50-249명)	20.9%	28.5%	24.4%	10.4%	12.6%	11.4%
취업-대기업 (직원 250명 이상)	11.3%	12.6%	11.9%	20%	21.2%	20.6%
취업-비영리기구	2%	3.9%	2.9%	3.1%	3.1%	3.1%
취업-연구원 (학업 경력을 위해)	4.4%	6.8%	5.5%	6.9%	3.9%	5.5%
취업-공공기관	18.6%	9.9%	14.7%	23.1%	15.4%	19.6%
자신의 사업	3.1%	12.8%	7.6%	8.9%	23.0%	15.4%
가족의 사업 승계	0.2%	1.8%	0.8%	1.3%	3.4%	2.3%
가업-현재 가족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사업	1.3%	1.8%	1.4%	0.9%	1.6%	1.2%
기타/아직 잘 모르겠음	0.25%	14.9%	20.4%	21.6%	14.7%	18.4%

## IV. 창업 의지의 결정 요인

### 4.1 창업 의지에 대한 세부 분석

<표4>에 제시된 질문 여섯 가지가 학생 창업 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학생들은 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에서 7점(매우 동의함)까지 7점 척도로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였고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은 <표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창업의지 관련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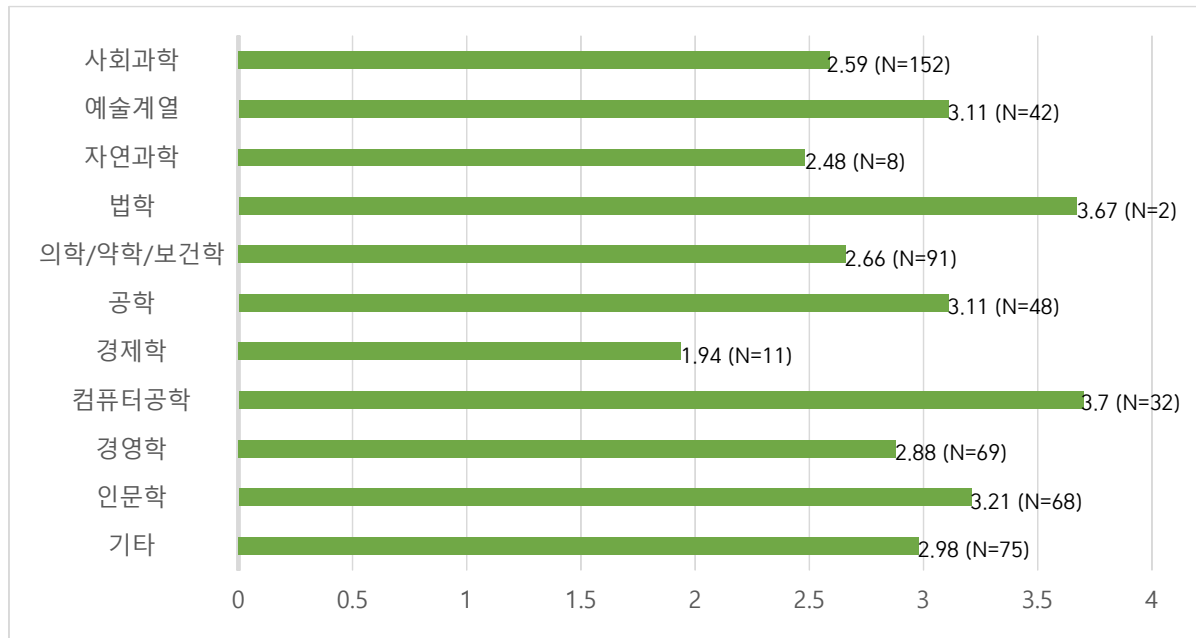
	N	평균	표준편차
나는 창업가가 되기 위해 어떤 것도 할 준비가 되어있다.	624	3.06	1.520
내 직업 상의 목표는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619	2.68	1.533
나는 내 회사를 시작하고 경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618	3.33	1.712
나는 미래에 회사를 만들 것을 결심했다.	619	2.68	1.563
나는 창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612	2.65	1.525
나는 언젠가 창업할 강한 의향이 있다.	609	2.72	1.641

1점(매우 동의하지 않음) to 7점(매우 동의함)

질문 여섯 가지에 대한 답을 평균값으로 하여 창업의지 값을 도출했다. <그림9>는 전공에 따른 창업의지를, <그림 10>은 성별과 전공에 따른 창업의지에 대한 값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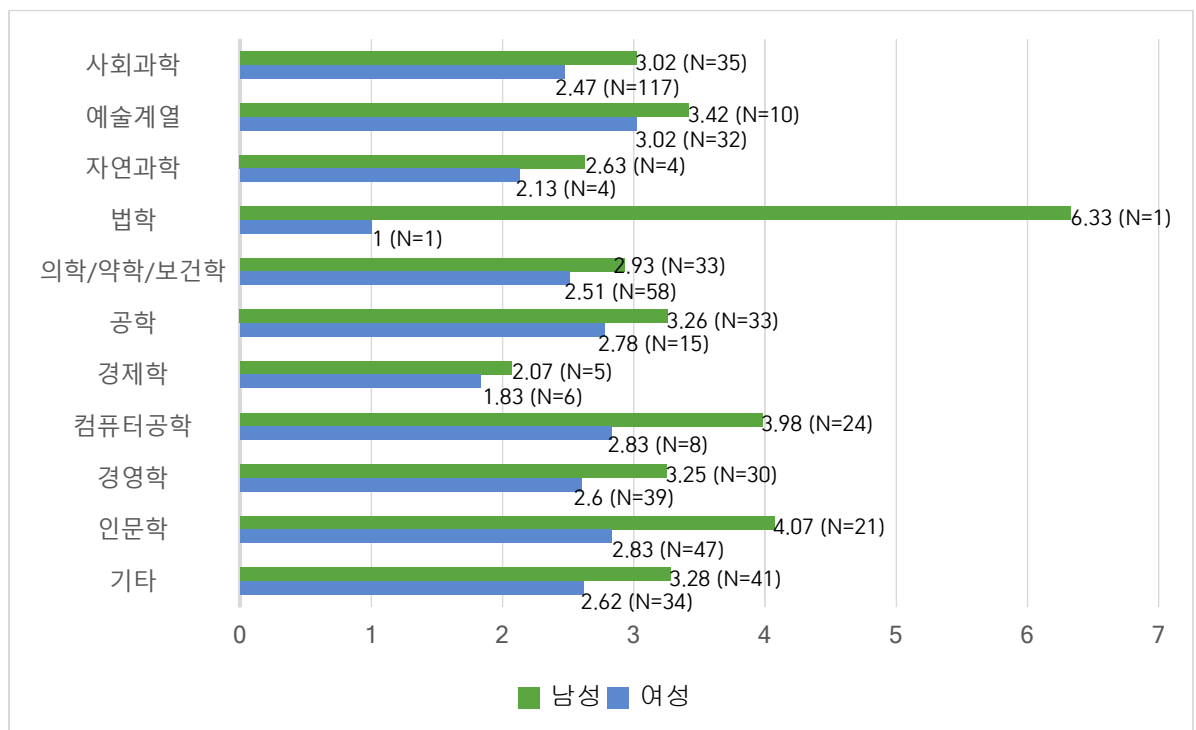
<그림10>에 제시되어 있는 값에 대한 Anova 분석결과, 창업의지는 유의미한 값이 나왔고( $F=3.44$ ,  $p<0.01$ ) 사후검증(Scheffe) 결과 또한 컴퓨터공학 전공 학생들이 다른 전공 학생들보다 창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전공에 따른 창업의지



다음으로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창업의지를 살펴보면, 창업의지가 성별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의 창업의지 평균은 3.31로 여성 평균 2.6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특히 인문학에서 가장 컸던 반면 법학에서 가장 적었다.

<그림 10> 성별 및 전공에 따른 창업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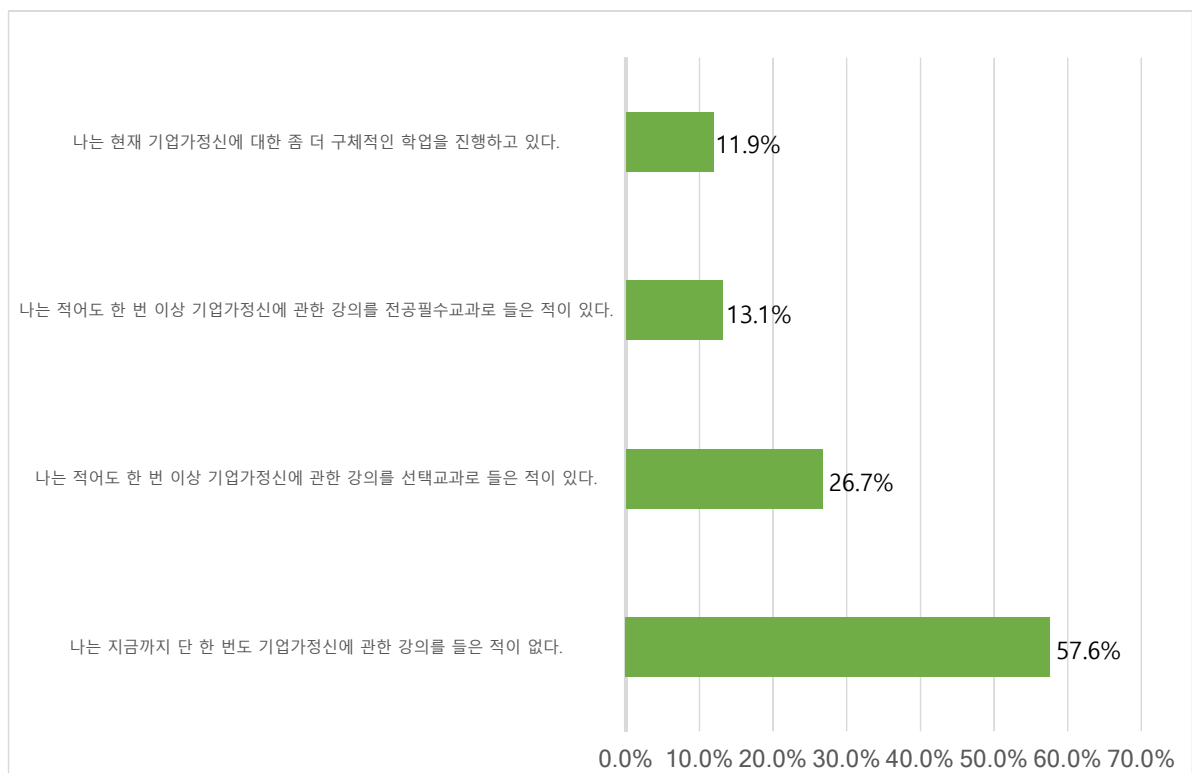
## 4.2 대학 요인에 따른 분석

대학 환경은 학생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대학은 기업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 4.2.1 기업가정신 관련 수강 경험

<그림11>의 4개 설문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관련 수강경험을 물어보고 있다. 응답자의 42%넘는 비율이 1개 이상의 기업가정신 관련 수업을 수강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대략 58%의 학생들이 단 한 번도 기업가정신에 관한 강의를 들어본 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 기업가정신 관련 수강경험



#### 4.2.2 수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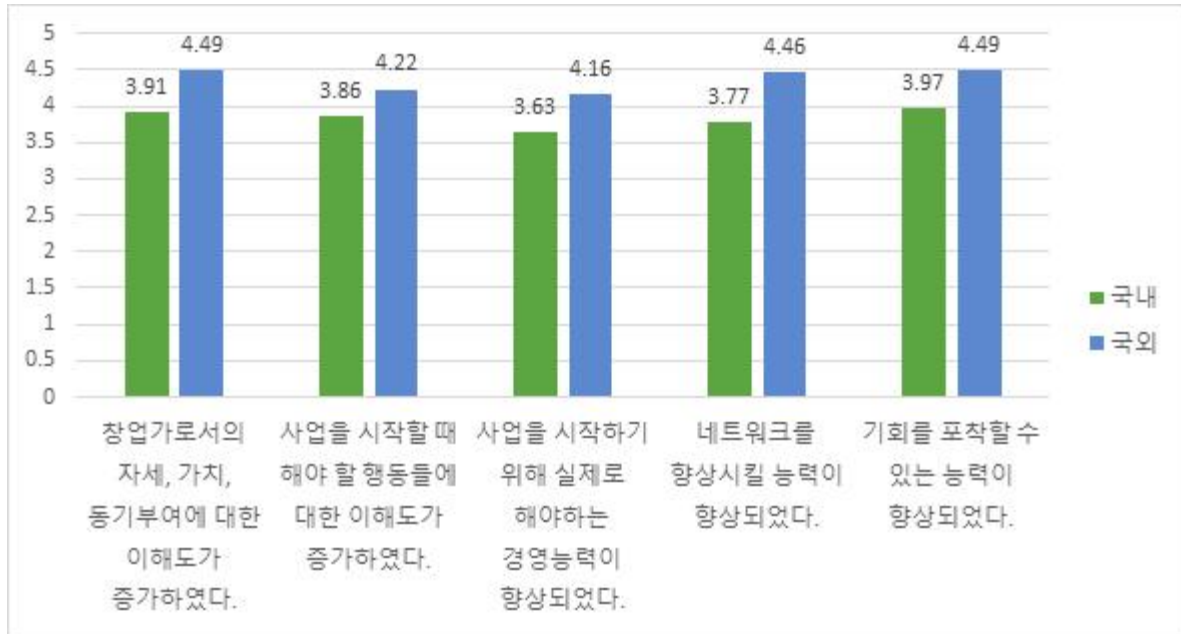
기업가정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어떤 학습을 했는지 설문을 진행했다. <표5>에 나와 있는 5가지 문항으로 확인했으며 매우 동의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동의함(7점)까지의 7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표 5> 수업효과

	문항 (내가 참석했던 수업들은...)
1	창업가로서의 자세, 가치, 동기부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였다.
2	사업을 시작할 때 해야 할 행동들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였다.
3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실제로 해야 하는 경영 능력이 향상되었다.
4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능력이 향상되었다.
5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학생들의 수업 효과에 대한 결과는 <그림12>에 제시되어 있다. 5개 설문 중에 사업에 대한 실용적 경영 능력 향상에 관한 문항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한 국제 평균과 비교해보았을 때, 기업가정신 수업은 한국 학생들은 국제 평균보다 수업에서 더 적은 이득을 얻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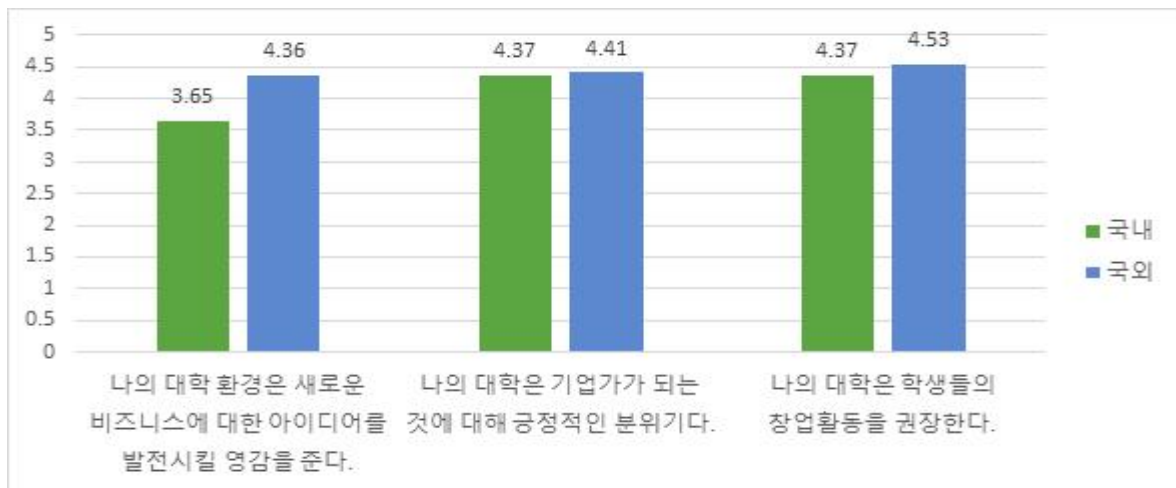
<그림 12> 대학의 창업 관련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 4.2.3 교내 분위기

교내의 기업가정신 분위기는 학생들의 창업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림 13>과 같이 응답자들에게 7점 척도로 교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학습 경험에 관해 3가지 질문을 했다. 그 결과, 나의 대학 환경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영감을 준다는 질문은 다른 2개 질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 학생들은 응답했다. 또한 국제 평균이 한국 학생보다 창업과 관련된 교내 분위기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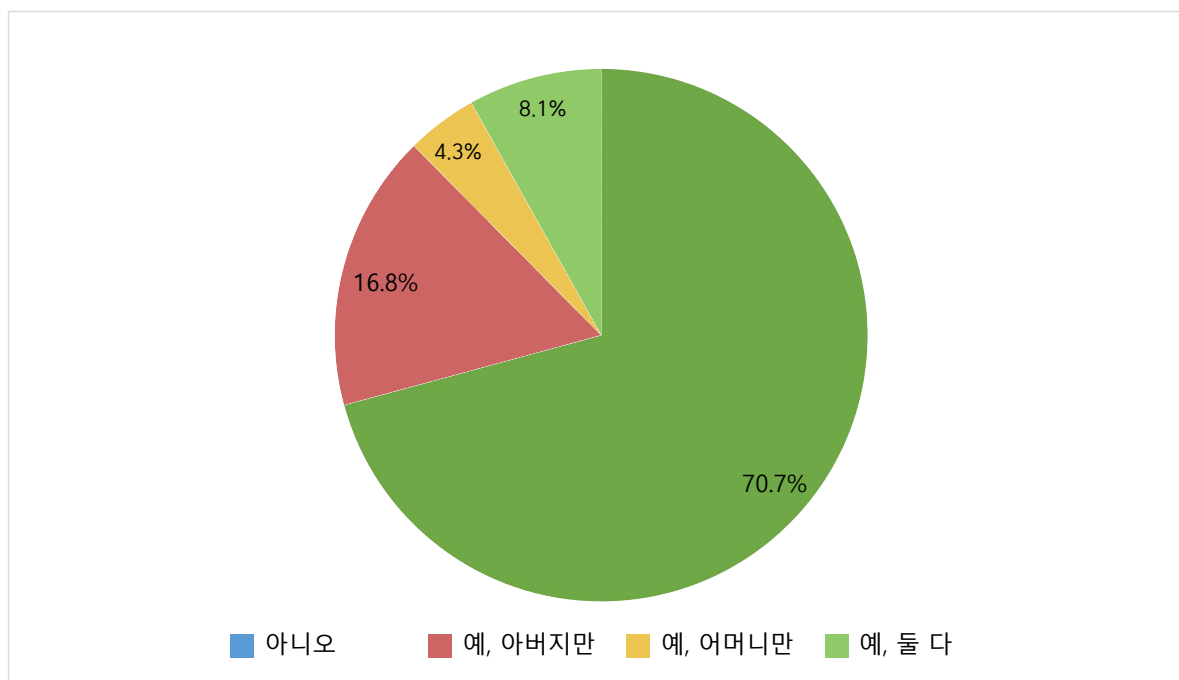
<그림 13> 교내 분위기



### 4.3 가족 분위기

창업 분야 연구자들은 창업의도에 가족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해왔다. 특히, 부모의 직업과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모가 사업가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림 14>에서 보듯이 약 71%의 응답자가 두 분 모두 사업가가 아니라고 응답했으나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사업자인 경우는 21.1%였고 구체적으로 16.8%는 아버지만, 4.3%는 어머니만 사업자라고 응답했다. 두 분 모두 사업을 하시는 비율은 8.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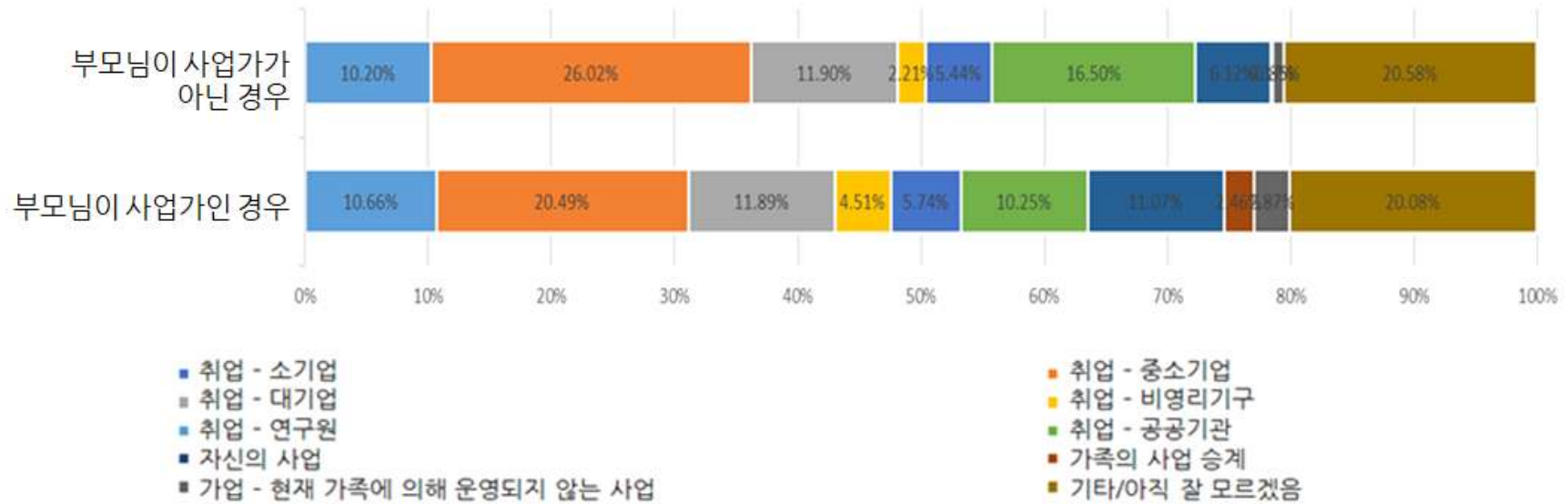
<그림 14> 부모님 사업가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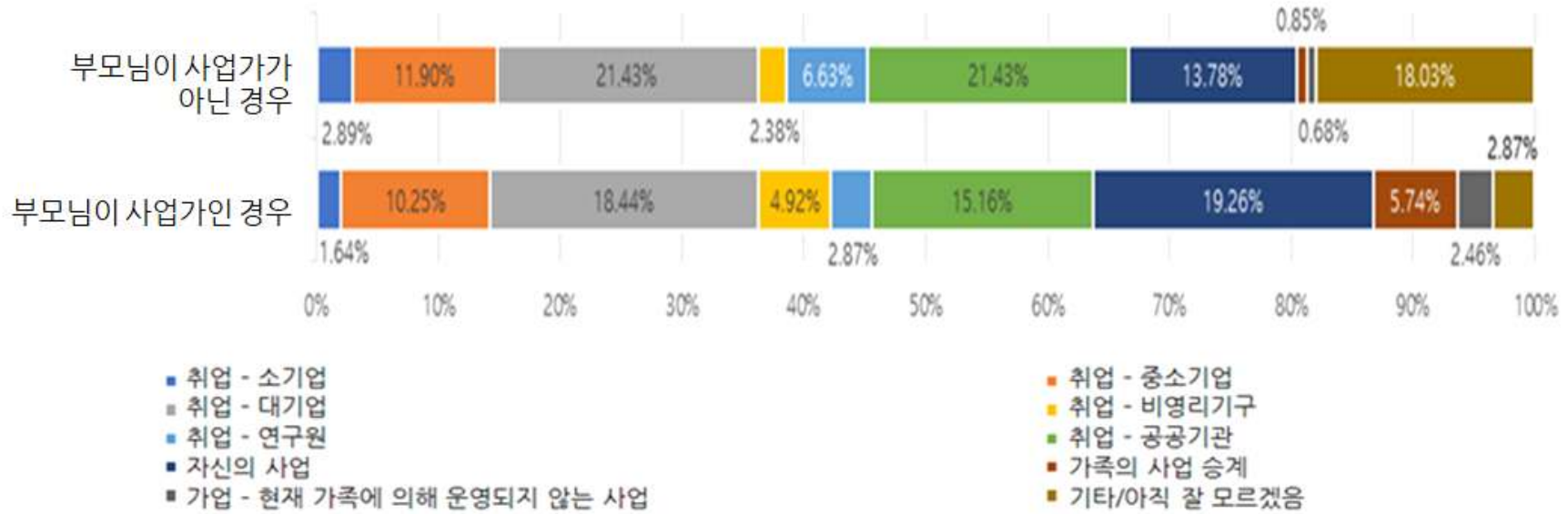
<그림 15>의 부모님 사업가 유무에 따른 졸업 직후 진로 선택 의사를 살펴보면, 이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사업가 유무와 학생의 창업의도 간의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이 사업가인 응답자의 비율은 11.07%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6.12%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16>은 부모님 사업가 유무에 따른 졸업 5년 후 진로 선택의사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사업가인 경우 학생의 창업 의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사업가인 응답자는 19.26%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13.78%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의도 또한 부모님이 사업가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5> 부모님 사업가 유무에 따른 학교 졸업 직후 직업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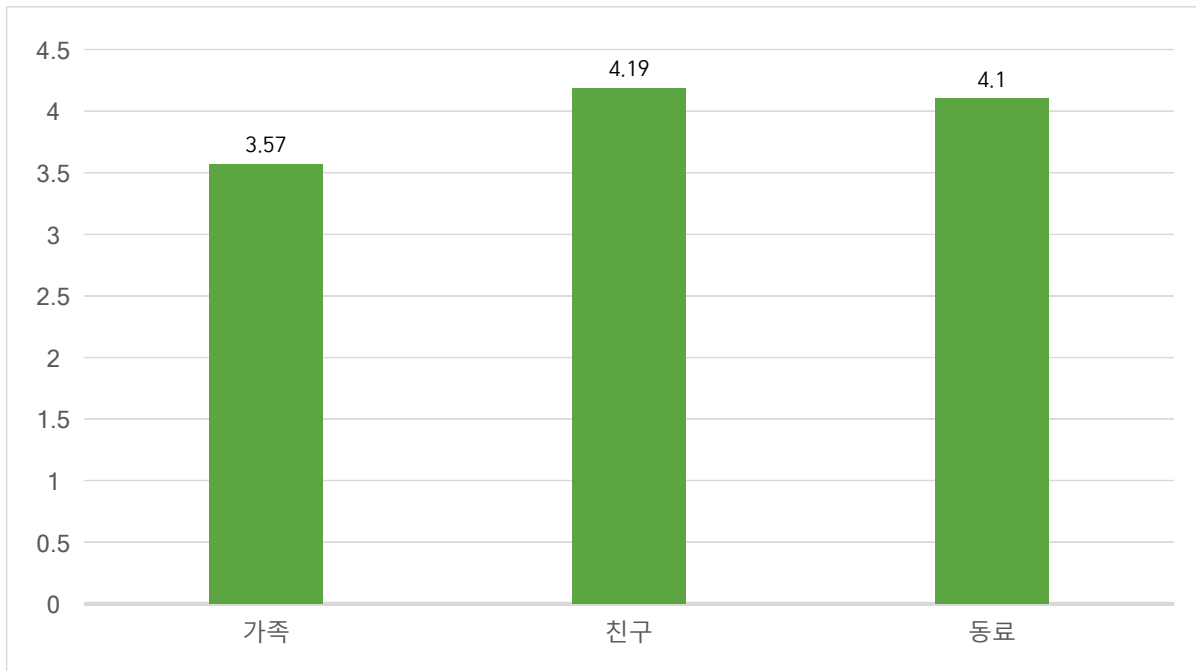
<그림 16> 부모님 사업가 유무에 따른 학교 졸업 5년 후 직업 선택



#### 4.4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분석

창업 의사에 따른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친구들의 인식이 4.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료가 4.1의 응답을 보였고 가족이 3.57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그림 17> 창업 의사에 따른 주변 사람들의 인식



1 (매우 부정적)~7 (매우 긍정적)

추가적으로 응답자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표6>의 2가지 질문을 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각 문항은 권력 거리, 중앙집권화 정도를 물어보고 있다. 그 결과, 서구 사회에 비해 한국은 질문이나 의문 없이 복종하는 사람이 많고(4.27) 여전히 권력이 상위에 집중되고 있다고(5.44) 응답하였다.

**<표 6>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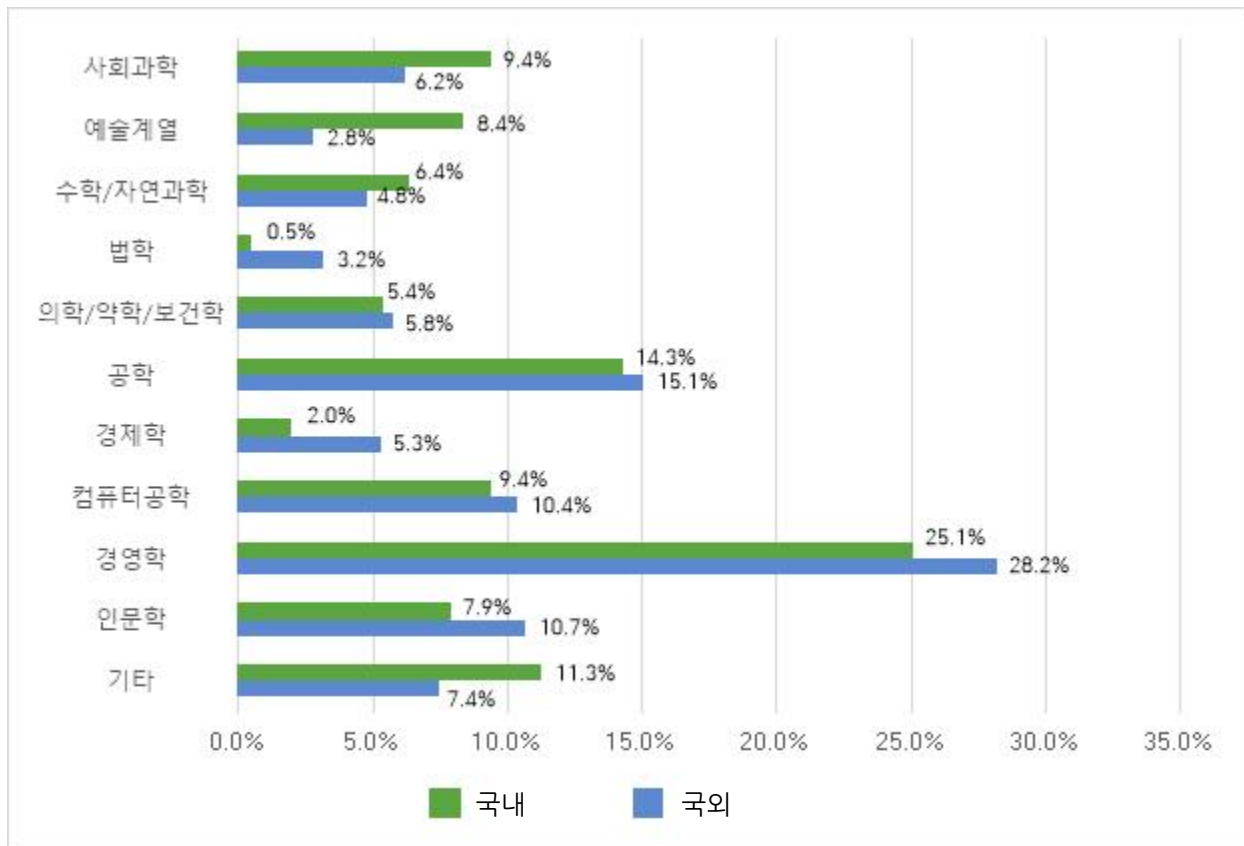
내용	N	평균	표준편차
한국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한다) ~ 7(질문 없이 복종한다)	830	4.27	1.63
우리 사회에서 권력은 ' _____ ' 되고 있다. 1 (사회 전체에 공유) ~ 7 (상위에 집중)	830	5.44	1.40

## V. 예비창업자

### 5.1 개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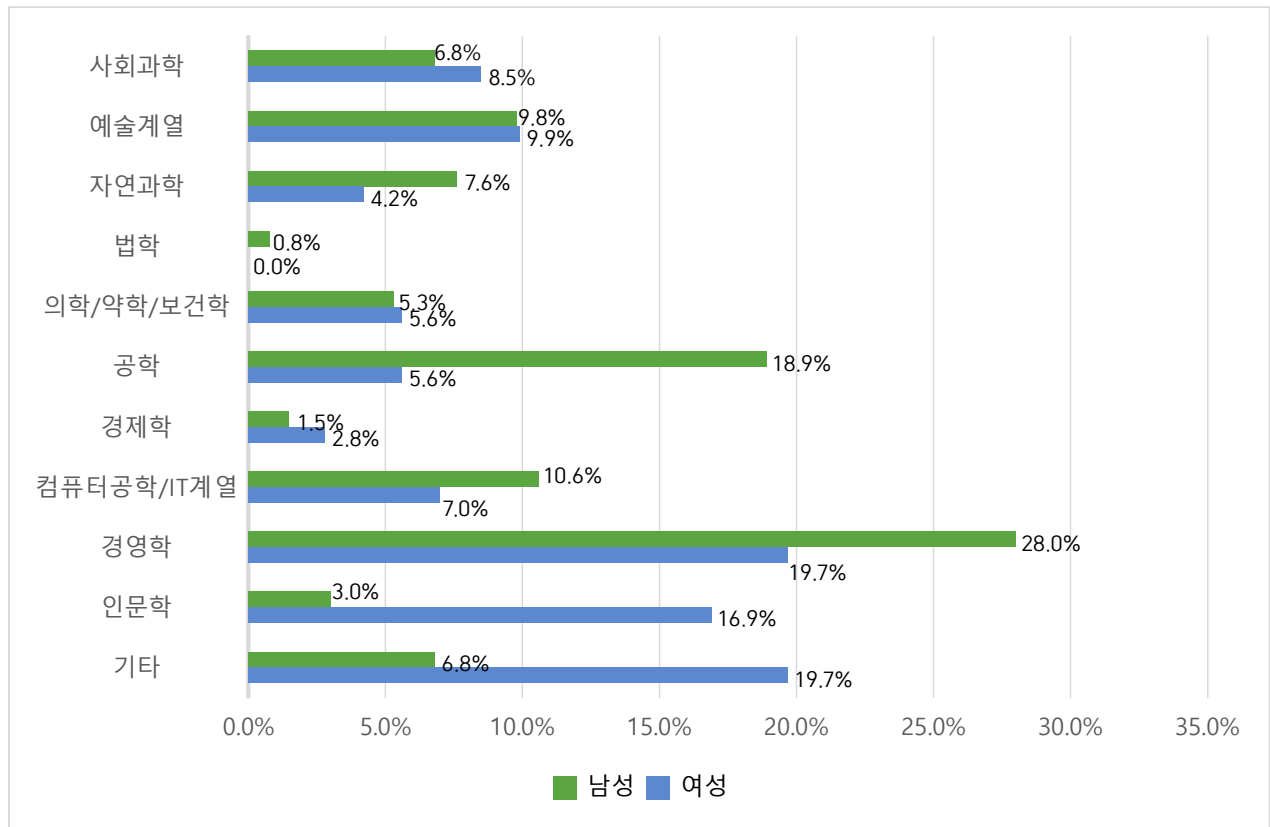
예비 창업자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832명 중 204명이 예비창업자라고 응답하였다(전체 중 24.5%). 이들의 전공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인 응답자 중 경영학이 25.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학이 14.3% 순이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예비창업자 전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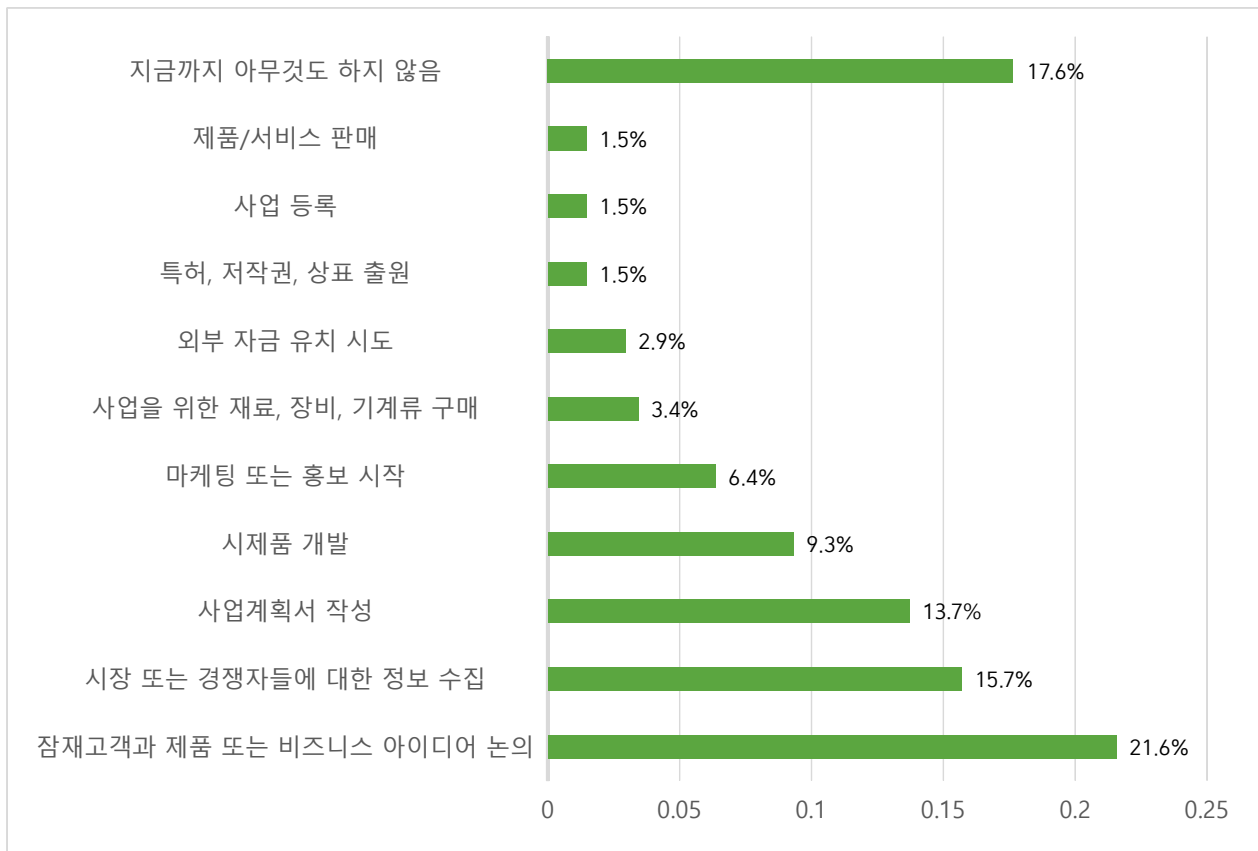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전공 분포는 이전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경영학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과학, 인문학, 경제학, 의학/약학/보건학/예술계열/기타 전공은 남녀 간의 큰 차이가 없거나 여학생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성별에 따른 예비창업자 전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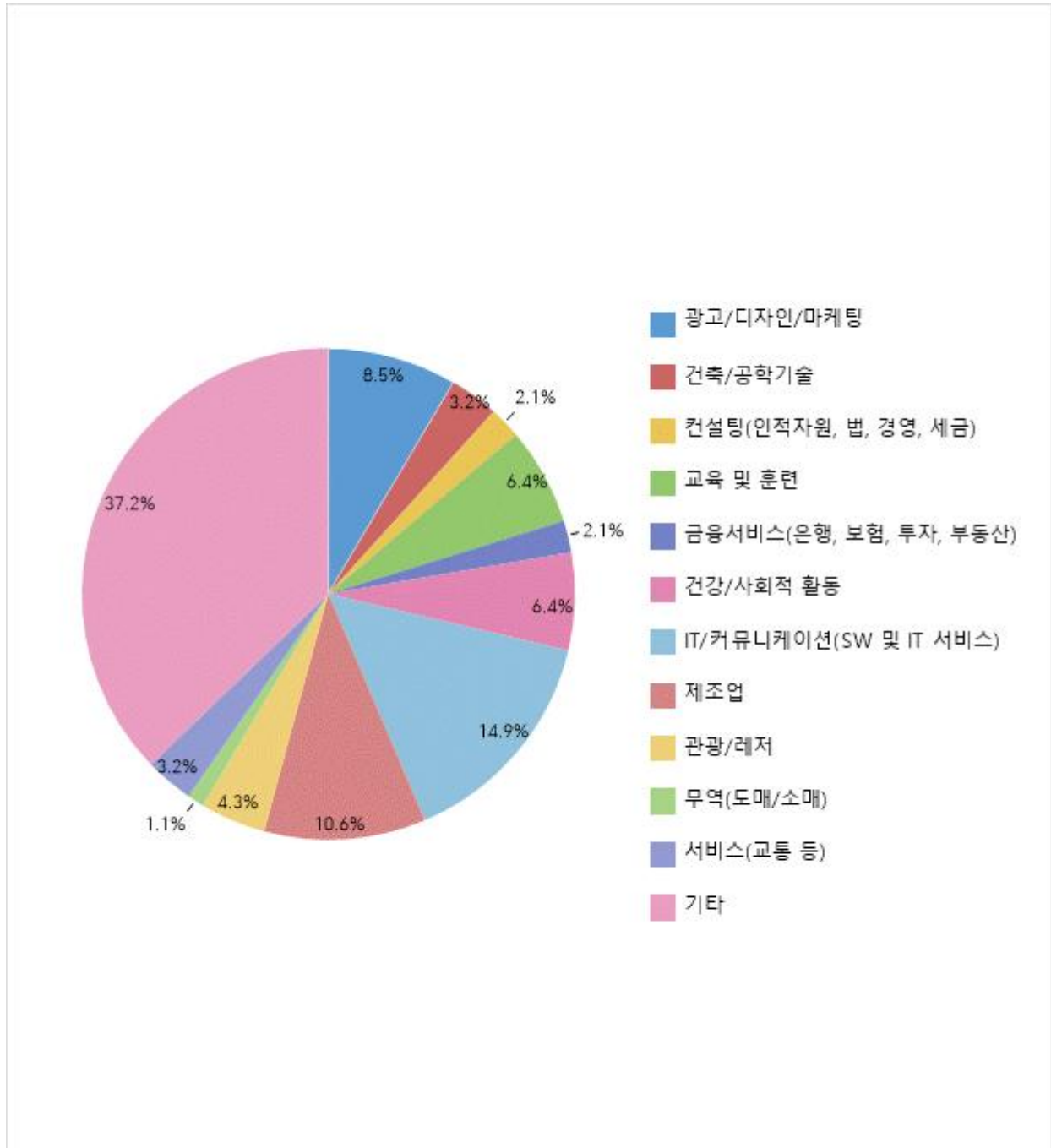
다음으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이미 시작한 활동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20>의 11가지 활동에 관해 질문을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1.5%만이 사업 등록을 했고 대다수가 비즈니스 아이디어 논의(21.6%), 정보 수집(15.7%), 사업계획서 작성(13.7%), 시제품 개발(9.3%) 단계에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17.6%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림 20> 자신의 사업을 위해 시작한 활동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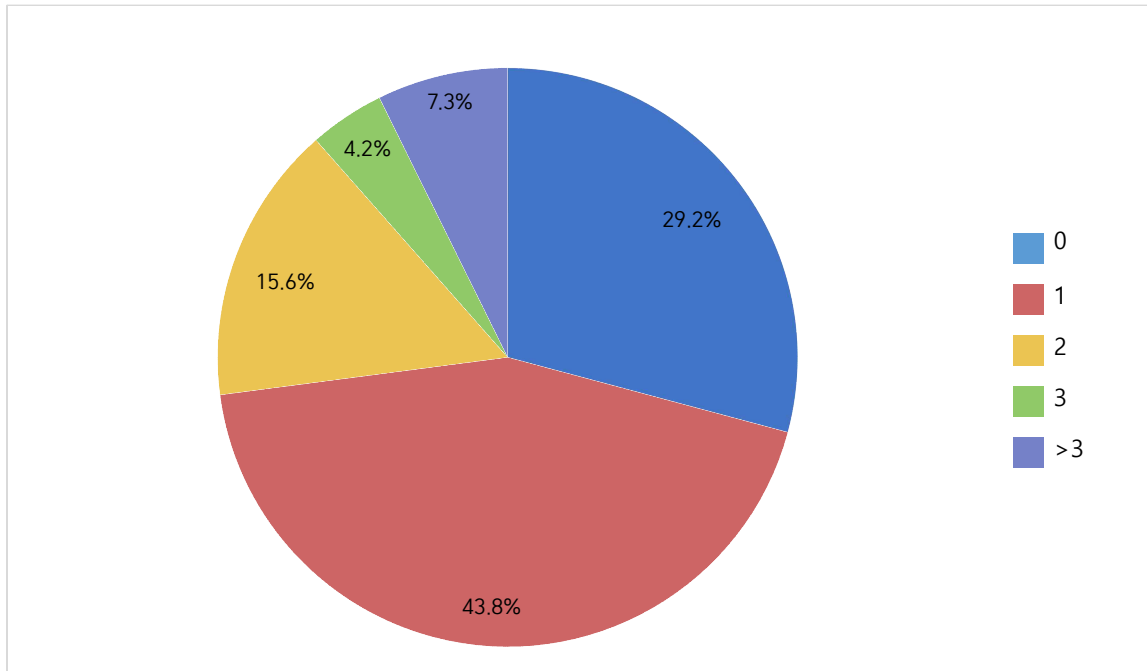
<그림21>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야를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분야가 기술 IT/커뮤니케이션 분야로 14.9%의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무역 제조업 10.6%, 광고/디자인/마케팅 8.5%, 건강/사회적활동 6.4%, 교육 및 훈련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자신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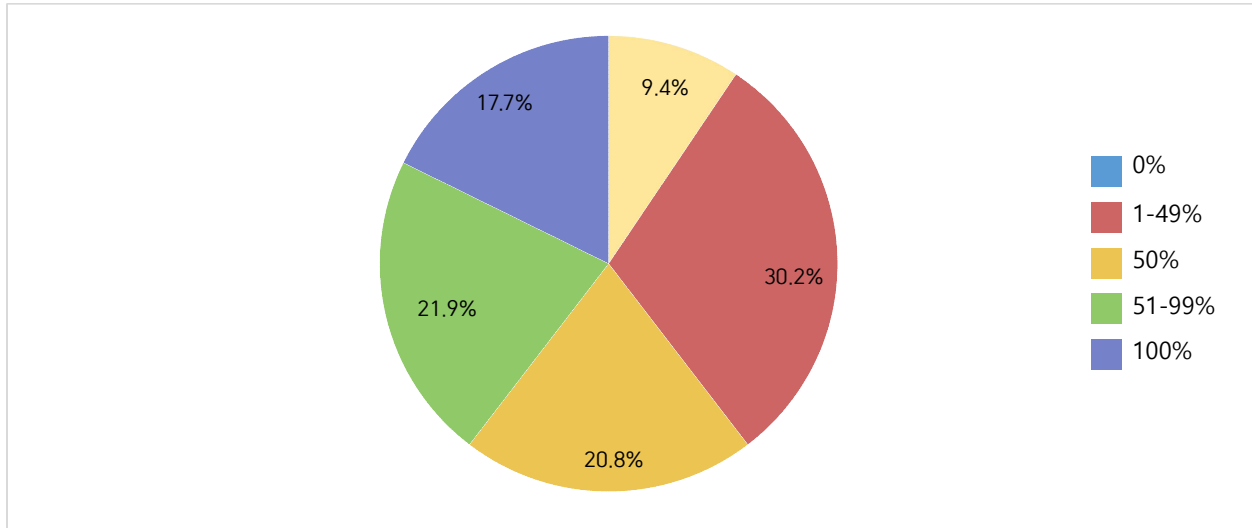
다음으로 창업을 할 때 몇 명의 동업자를 계획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1명이 43.8%로 가장 많았고, 0명 29.2%, 2명 15.6%, 3명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자신의 사업을 할 때 동업자 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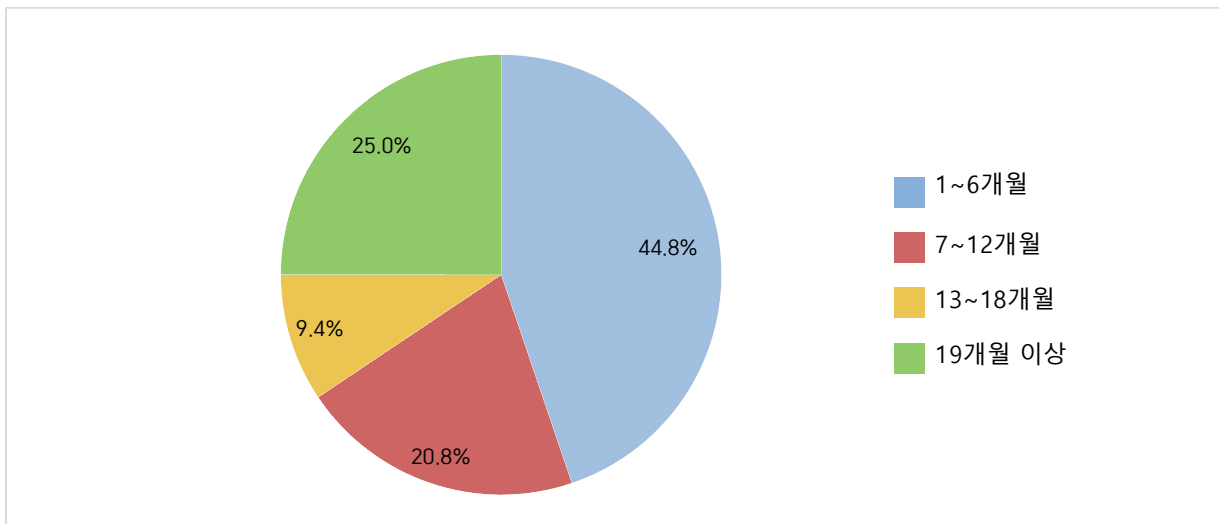
또한 예비창업자의 지분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0.2%가 1~49%라고 응답했으며, 42.7%는 과반 이상인 50-9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7%의 응답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23> 자신의 사업에서 지분율



다음으로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 들인 시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4.8%가 1~6개월 사이로 응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7~12개월 20.8%, 13~18개월 9.4%, 19개월 이상 25%로 나타났다.

<그림 24> 자신의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 계획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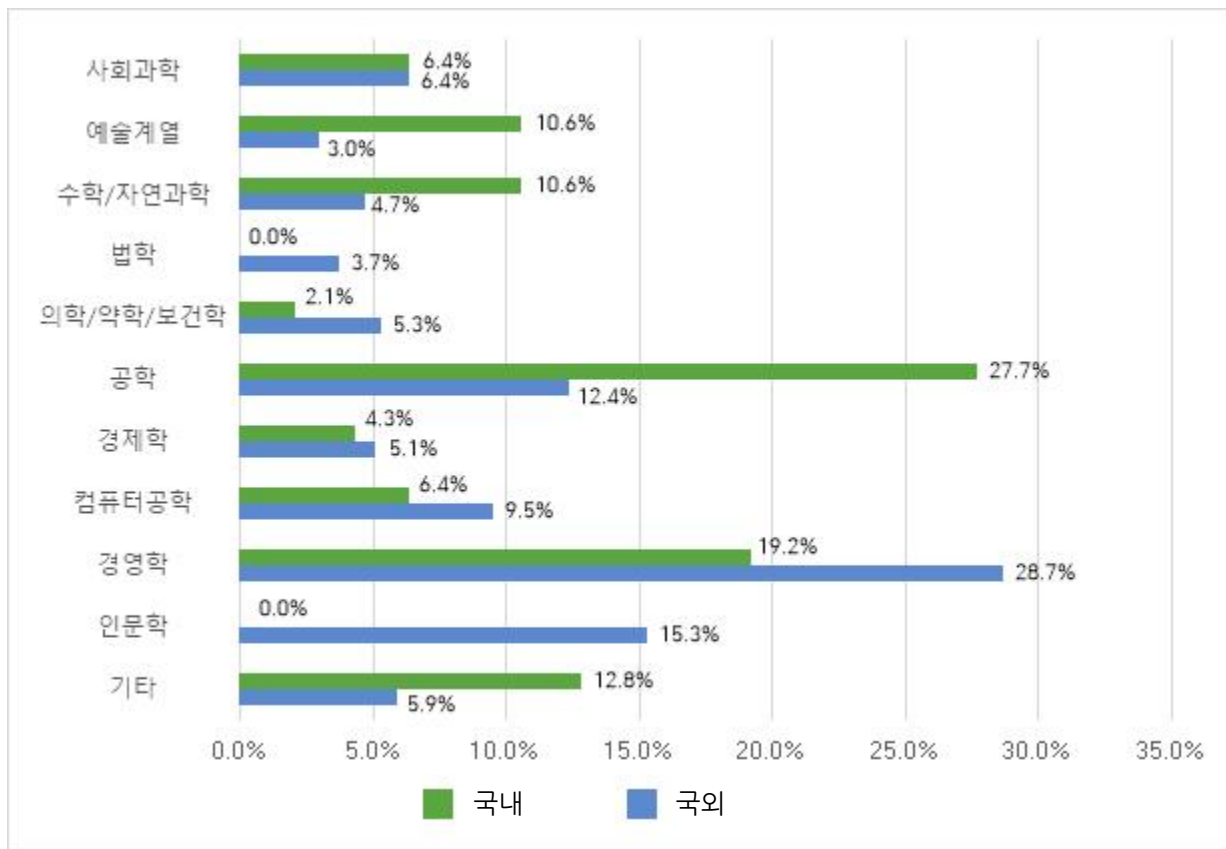


## VI. 창업자

### 6.1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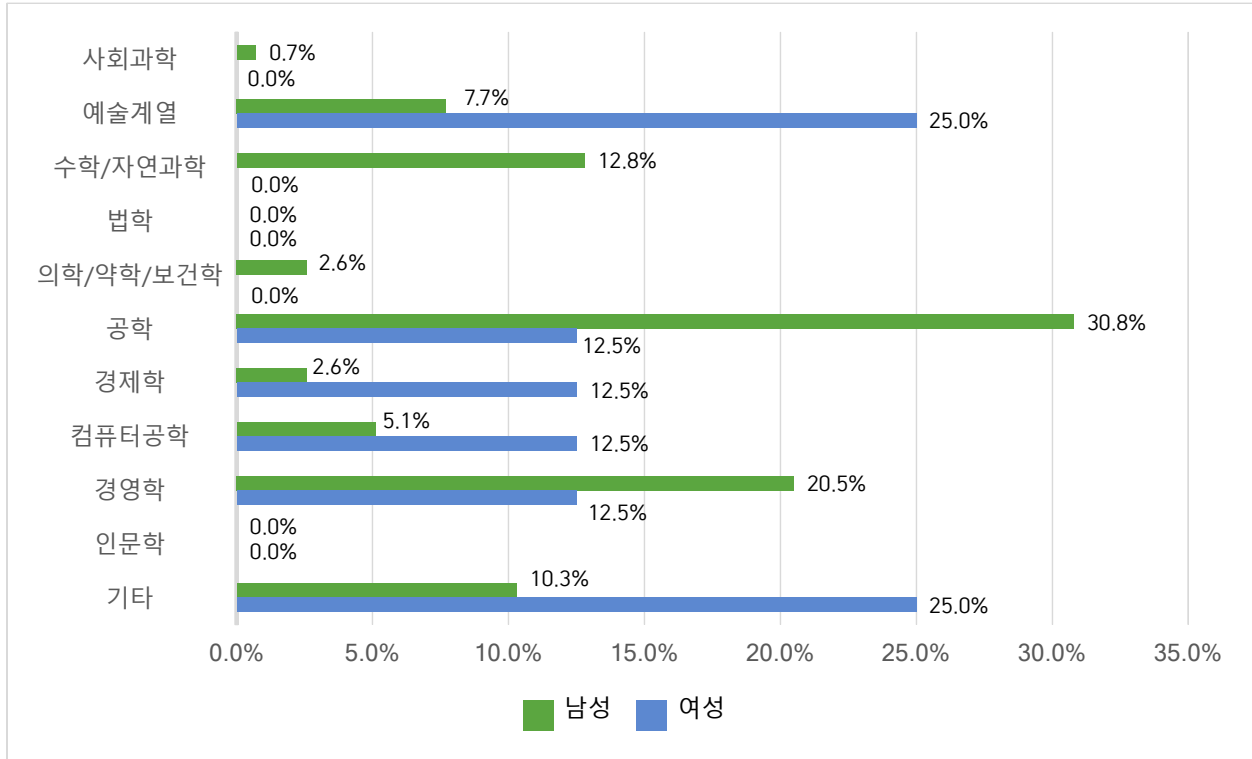
<그림25>는 창업자의 전공 분포를 보여준다. 예비창업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학계열이 27.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영학 19.2%의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국제 데이터는 공학이 12.4%, 경영학이 28.7%였다.

<그림 25> 창업자 전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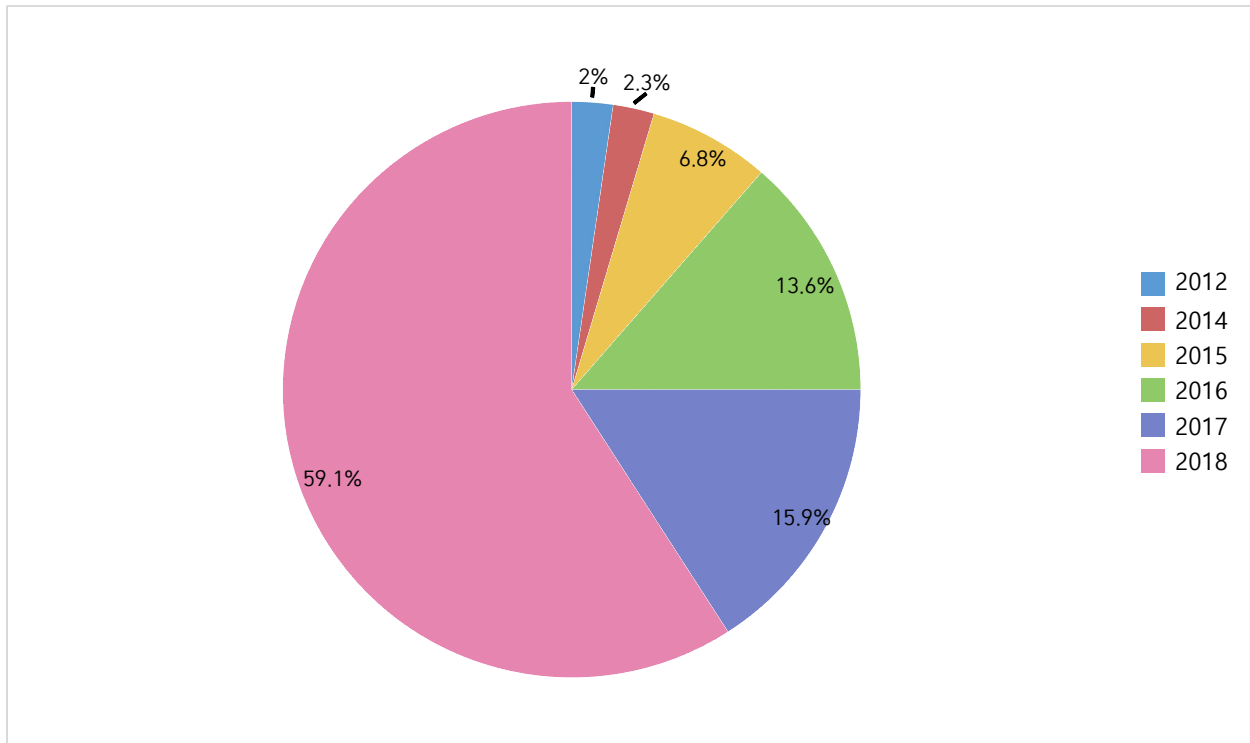
또한 창업자 중 남성은 대부분 공학과 경영학에, 여성은 예술계열과 기타 전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성별에 따른 창업자 전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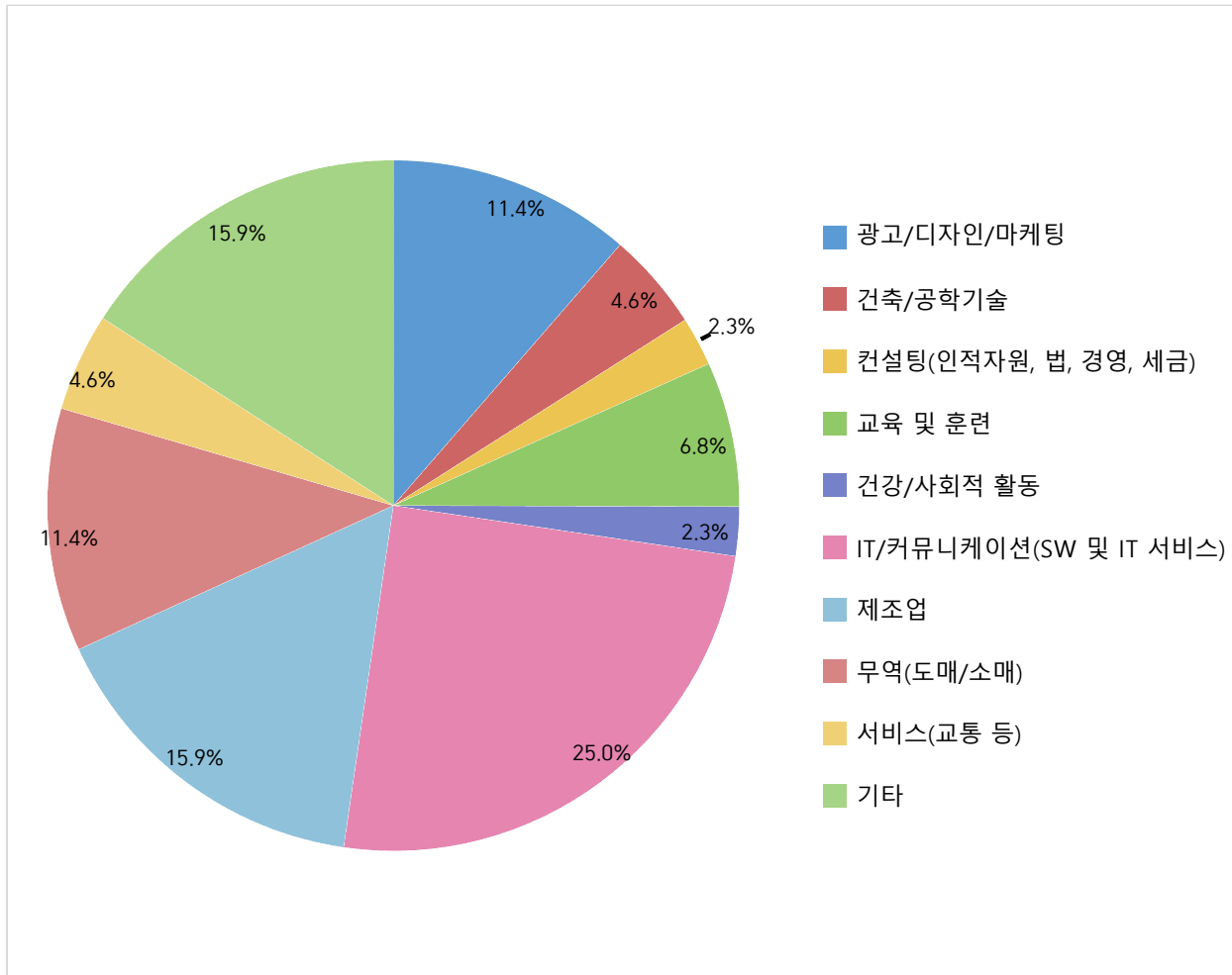
다음으로 창업자들의 회사 설립연도는 59.1%가 2018년이었고 업력이 1~2년된 비율은 15.9%, 2~3년된 비율은 13.6%였으며 창업한지 3년 이상이 된 비율은 12%보다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27> 회사설립연도



다음으로 창업자들의 사업 분야는 25%가 IT, 15.9% 제조업, 11.4%가 광고/디자인/마케팅 11.4%가 무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창업자 사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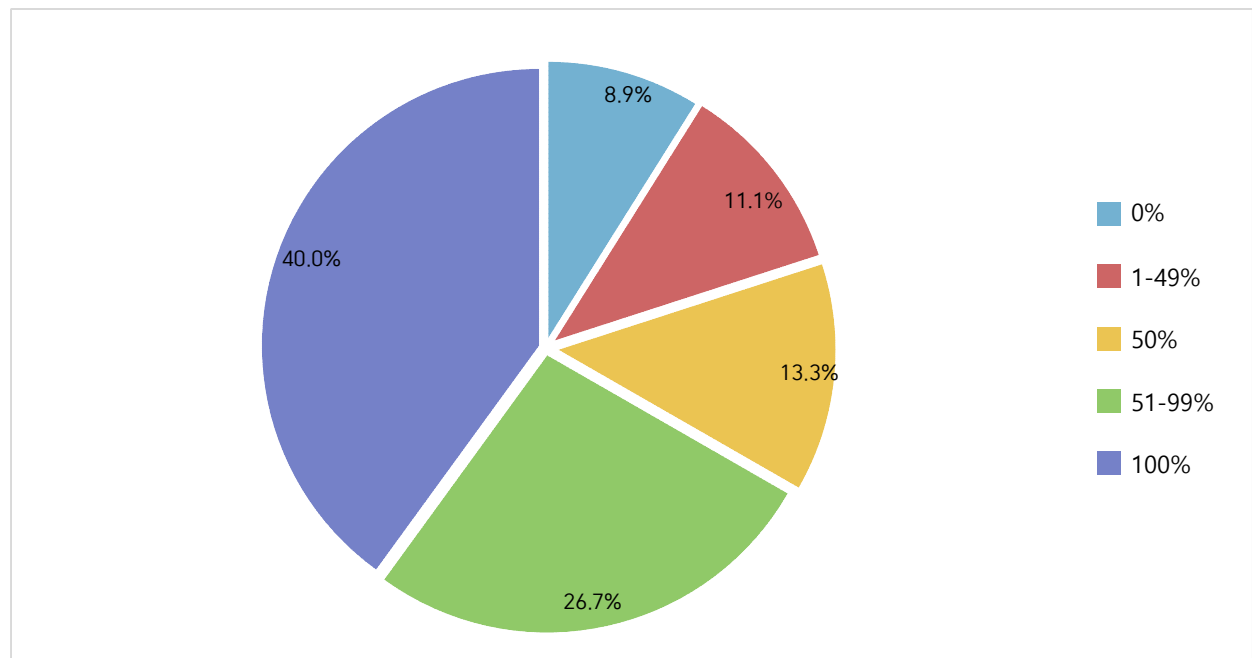
또한 창업팀이나 창업자를 제외한 직원 수는 아래 <표7>에 제시되어 있다. 3명이 24.4%로 가장 많았으며, 1명 22%, 0명 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 7.3%만이 6명 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었다.

<표 7> 사업장 직원 수 (본인 제외)

인원(명)	빈도	유효 퍼센트
0	8	19.5
1	9	22.0
2	7	17.1
3	10	24.4
4	2	4.9
5	2	4.9
6	3	7.3

소유 지분율은 응답자의 26.7%가 지분율51~99%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40%가 100%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하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35%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소유 지분율



## 6.2 창업자 특성

창업자의 주관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30>의 6가지 질문을 하였다. 6가지 질문 중 때때로 나는 활기가 너무 넘쳐서 폭발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매일 새로운 날을 기대한다는 2개 질문에서만 한국 학생이 국제평균 데이터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림 30> 창업자의 활력



<그림31>은 창업자의 회사에 대한 정서적 몰입 정도를 보여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5개 질문을 했는데 1개를 제외하곤 국제 데이터와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국제 평균에 비해 한국 창업자가 현저히 낮았던 질문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물어보는 것으로 한국 창업자는 2.76으로 나타난 반면 국제 평균은 4.84로 나타났다.

<그림 31> 창업자의 정서적 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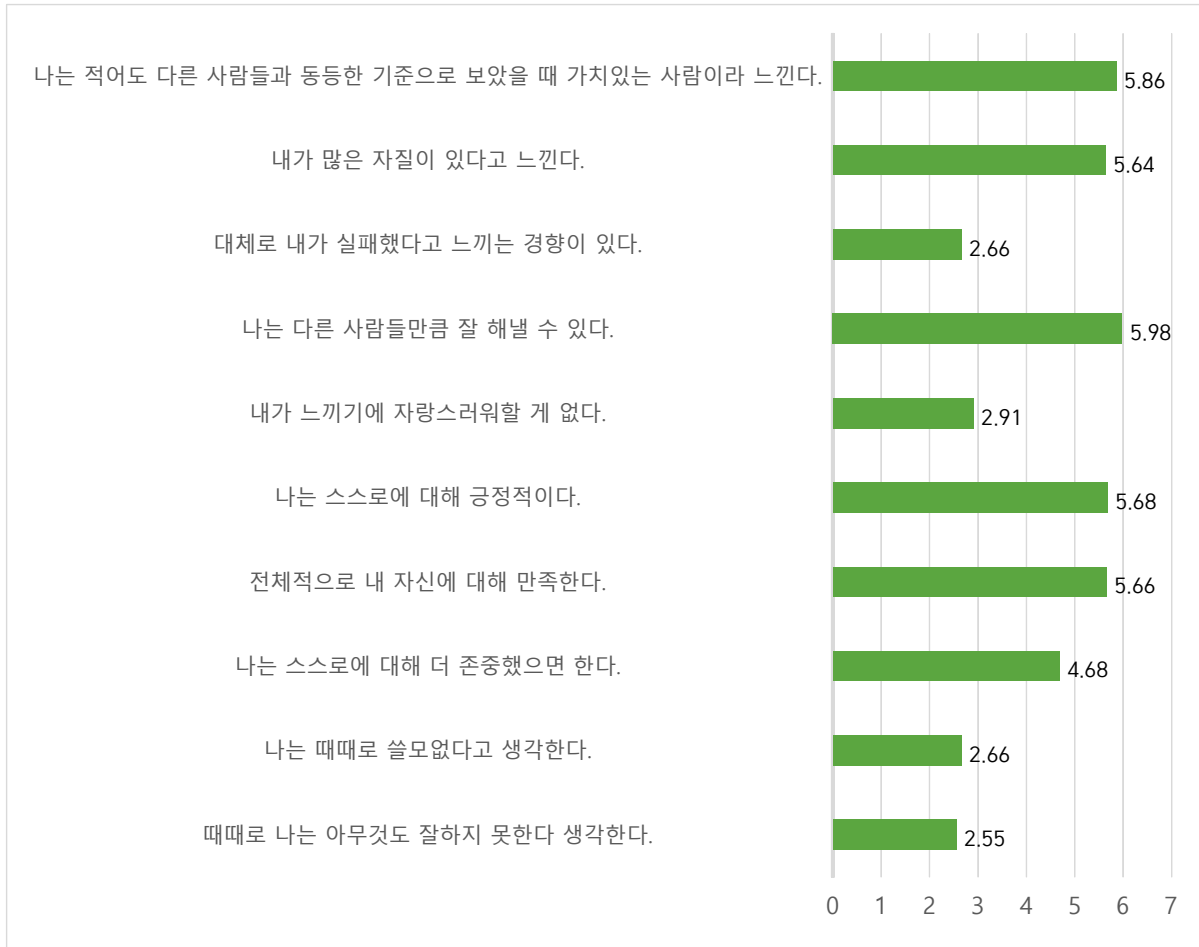
다음으로 창업자의 회사에 관해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는 높은 권력 거리를 지니고 있으므로 응답자들은 회사 내에서 권력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했다.

<표 8> 창업자의 권력거리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내 회사에서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한다) ~ 7(질문 없이 복종한다)	46	2.83	1.58
내 회사에서 직원들은 권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사회 전체에 공유) ~ 7 (상위에 집중)	46	3.57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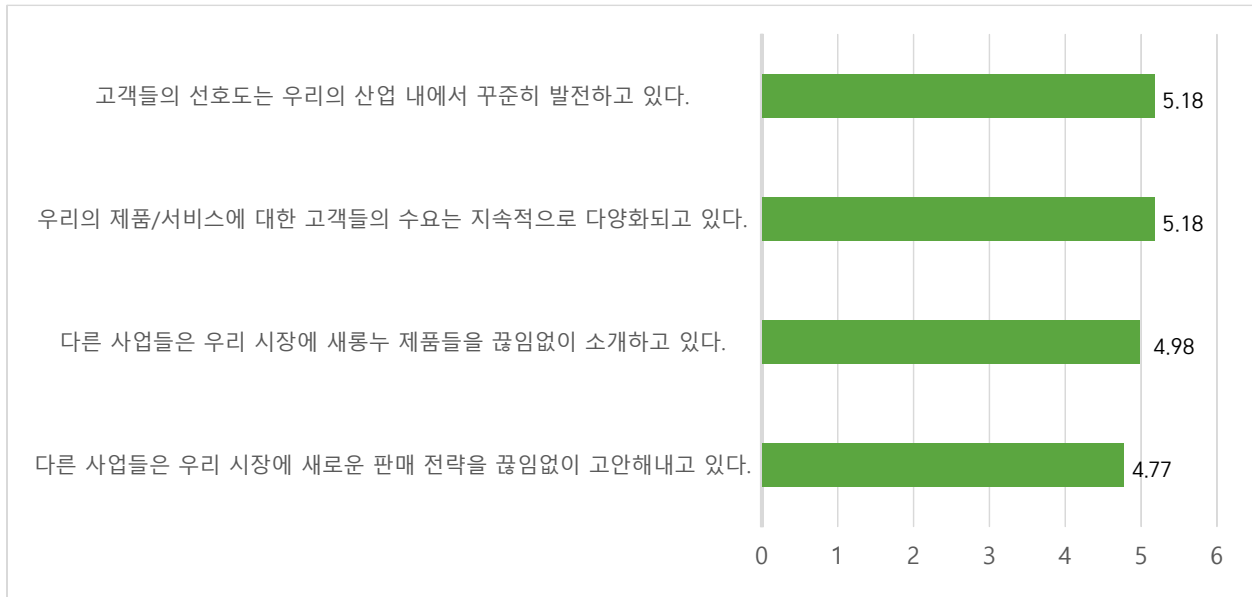
<그림32>는 창업가의 일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창업가는 높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32> 창업가의 일반적인 태도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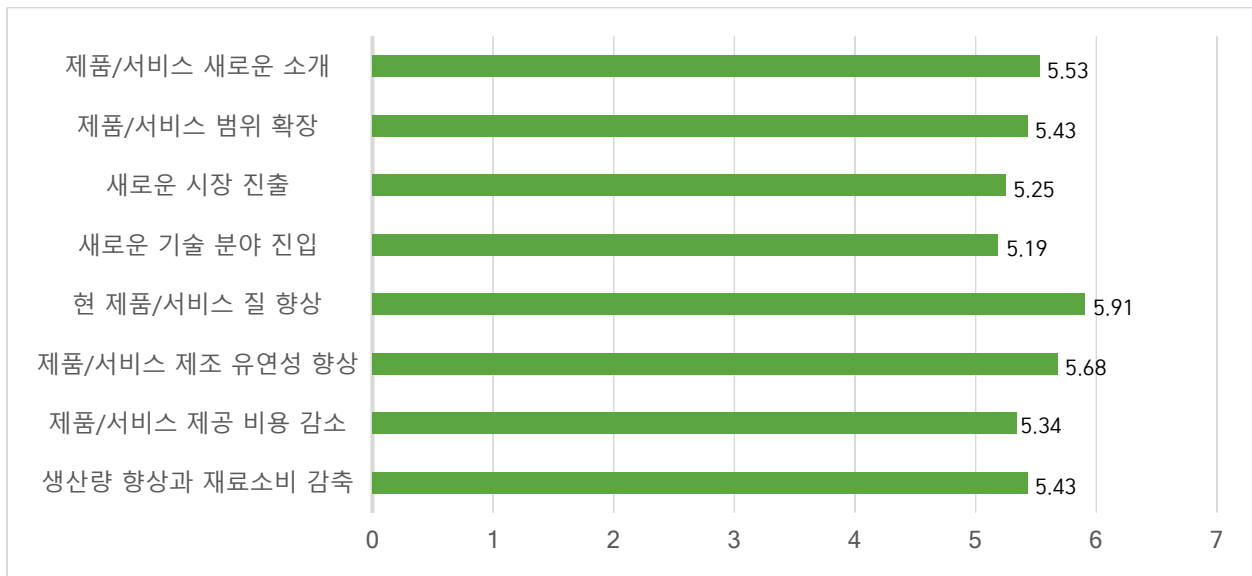
다음으로 본인 기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4가지 질문을 하였다. 모든 질문은 7점 척도로 평가되었으며 각 문항별 응답은 <그림33>과 같다.

**<그림 33> 본인 기업 현황**



다음으로 혁신적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34>의 8가지 질문을 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척도로 평가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4> 혁신적인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 중요한 것**



1(전혀 중요하지 않음) ~ 7(매우 중요함)

## Ⅶ.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보고하는 이번 GUESSS 조사는 18개 대학 832명이 응답한 설문예 기초하고 있다. 2017년 GUESSS 조사와 비교했을 때 2018 GUESSS는 참여 대학과 학생 모두 더 작은 규모로 진행되었다.

201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 먼저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졸업 5년 후 진로로 창업을 고민하는 비중이 22.9%에서 15.38%로 낮아진 반면 졸업 직후 창업을 생각하는 비중은 7.4%에서 7.57%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창업의도에 관한 설문을 살펴보면 2017년에 비해 6가지 항목이 모두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의 이유로 분석된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2018년 표본은 2017년 표본보다 비교적 더 젊고(24세 이하가 2017년 56.1%, 2018년 88.37%), 비교적 높은 여성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여성 응답이 2017년 35.6%, 2018년 54.09%), 비교적 학부생 비율이 낮다(2017년 96.9%, 2018년 89.79%). 선행 연구에 따르면, 창업 의도는 젊은 나이, 여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학위)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그러므로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낮게 보고된 창업 의도는 충분히 표본을 고려했을 때 이해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 강의와 관련하여, 2018년 응답자의 58%가 단 한 번도 수업을 수강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2017년에는 응답자의 35.5%만이 수업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학생의 창업 의도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게 되면서 예비창업자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대략 40%는 경영학과 공학을 전공했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예비창업자의 70.8%가 1명 이상의 공동창업자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실제 창업자는 55.56%만이 실제 공동 창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업가정신 교육 이외에도 대다수의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공동창업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표본과 국제 평균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졸업 5년 이후 창업 의도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다는 것이다(1위 페루 66.9, 미국 26.1, 중국 17.3, 한국 15.4, 일본 12). 기업가정신은 한 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매개로 여겨진다. 창업 의도는 실제 창업을 하기 위한 첫 단추이므로 이번 2018 한국 GUESSS 조사 결과는 한국 경제에 우울한 전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고 정부, 학계, 미디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불행 중 다행인 건 예비 창업자와 기 창업자의 자아효능감, 창업 교육 환경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창업 의도만큼 나쁘진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의 창업 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은 여전히 사실이며 관련된 여러 노력이 촉구되는 상황이다.